

Sulwhasoo

VOL.89 JANUARY/FEBRUARY 2019

Sulwhasoo

VOL.89

Sulwhasoo

JANUARY/FEBRUARY 2019





우리가 선택한 기록이 사랑이 될무렵 <O, X> / 강준영
ceramic, glazed gold / 2018

조선시대 유교 사회에서는 사욕의 절제와 담박한 마음과 행동이 덕으로 칭송받았다. 조선을 대표하는 도자 작품인 백자 달항아리는 선비들의 반듯하고 검약한 정신이 깃든 유교 정신의 정수다. 청결한 순백은 깨끗한 마음을 담고, 달을 닮은 둥근 조형미는 인위적이지 않은 편안함을 품었다. 절제미와 백자의 미를 상징하는 달항아리가 현대 미술 작가 강준영을 만나 완벽하게 다른 미학을 선보인다. 팝아트처럼 다양한 문자와 그림, 화려한 컬러가 그려진 달항아리는 단아함을 벗어 던지고 경쾌한 매력을 발산한다. 과격의 미학은 감탄을 불러일으킨다.

유년 시절 호주 유학에서 접한 힙합과 그래피티, 마이클 잭슨과 앤디 워홀에 대한 경외 등을 녹여낸 강렬한 모습과 달리, 그의 달항아리는 슬픔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는 '사랑'을 담았다. OX 기호와 그림, 문자의 감각적인 구성은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의 혁신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소한 사랑과 아쉽게 잊히는 사회적 가치들이 함께하며 세상을 평등하게 비추는 달빛처럼 빛난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In the Confucian society of the Joseon Dynasty, restriction of personal desires and humble mindsets and deeds were appraised as virtues. Dalhangari, the white porcelain representing Joseon, is the essence of the Confucian spirit reflecting the scholar's righteous and humble qualities. Its pure white body conveys innocent hearts, while the round shape resembling a full moon appears naturally comforting and pleasant to the eyes. Dalhangari, a symbol of moderation and white beauty, presents a completely different aesthetic with the touch of contemporary artist Jun Young Kang. Dalhangari features various characters, images, and bright colors like Pop Art, which reminds you that it is no longer humble, but it is charmingly uplifting. The radical aesthetic amazes the viewers.

In contrast to the intense appearance reflecting his admiration of hip hop music, graffiti, Michael Jackson, and Andy Warhol to which he was introduced while studying in Australia, his Dalhangari conveys his 'love' for those in sadness. The artistic layout of OX symbols, images, and text deliver a message of positivity and hope. His innovation shines as bright as moonlight over world equality with humble love for everyone and the social values that are sadly being forgotten.

단단한 기본으로 만들어낸 피부 자신감
에센셜 라인

Essential Line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단계별로 영양과 생기를 부여하는 에센셜 라인은 얼굴에 본이 다른 아름다움을 꽃피웁니다.

Protects the skin from external factors
The Essential Line nourishes and revitalizes the skin step-by-step
to enhance your beauty beyond your expectations.



Sulwhasoo

JANUARY/FEBRUARY 2019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 설화수

설화수는 수천 년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전설적인 귀한 원료를 현대 피부과학으로 재창조하여 피부 안팎을 총체적으로 케어하는 궁극의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고 내면과 외면의 균형을 찾아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한다. 자연의 이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연의 진귀한 원료로 아름다움을 가꾸어 자연을 닮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동시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 아니라 내면까지 아름답게 가꾸어 내면과 외면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브랜드, 설화수. 3000가지 원료에서 찾아낸 피부 균형을 다스리는 설화수 고유의 원료인 '자음단™'과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효능을 가능케 한 한국의 우수한 효능 원료 '인삼', 그리고 첨단 피부과학 '바이오컨버전 기술'을 통해 설화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설화수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미국, 캐나다, 프랑스까지 전 세계 12개국에 진출, 아시아안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고 있다.

Sulwhasoo offers the ultimate skin solution that treats the skin from within by incorporating modern skin science into legendary ingredients infused with timeless Asian wisdom and presents holistic beauty to restore balance between body and mind. The Sulwhasoo brand gains wisdom from the laws of nature, pursues beauty reminiscent of nature with precious natural ingredients and delivers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between body and mind by creating beauty from the inside out. Sulwhasoo globally promotes the value of holistic beauty with the JAUM Balancing Complex™, an optimal blend of five ingredients, carefully selected from more than 3,000 medicinal herbs, Korean ginseng, the legendary ingredient that makes Sulwhasoo's unique formulas even more special, and Sulwhasoo's cutting-edge Bio-conversion Technology™. As of 2019, Sulwhasoo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Asian Beauty Creator, operating in 12 countries around the world such as South Korea, Mainland China, Singapore, Hong Kong(China), Thailand, Indonesia, Malaysia, Taiwan, Vietnam, the US, Canada and France.

Sulwhasoo

VOL.89 JANUARY/FEBRUARY 2019



펼 치 다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연 6회 발행하는
고품격 VIP 매거진입니다.

- 08
설화지혜
진주처럼 환하고 백합같이 깨끗한
- 12
피부 섬기기
고귀한 적송의 생명력이 젊은 피부로 일깨우다
- 16
新장인을 만나다
기호에 담긴 보편적 메시지를 발신하다
- 22
공간미감
삶을 짓는 아름다움
- 28
건너다
세상의 중심에서 피어난 설화수의 아름다움

누 리 다

- 36
설화인
뮤즈의 뮤즈
- 44
어우러지다
예술이 내려앉은 아름다운 자리
- 50
설화풍경
가만가만 안온한 새날이 이어지다
- 54
설화보감
새해의 건강과 염원을 담다
- 60
아름다운 기행
그림엽서 같은 설경 속으로
- 66
설화수를 말하다
소나무에 깃든 귀하고 고결한 아름다움
- 72
설화공간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의 특별한 설마중
- 74
설화수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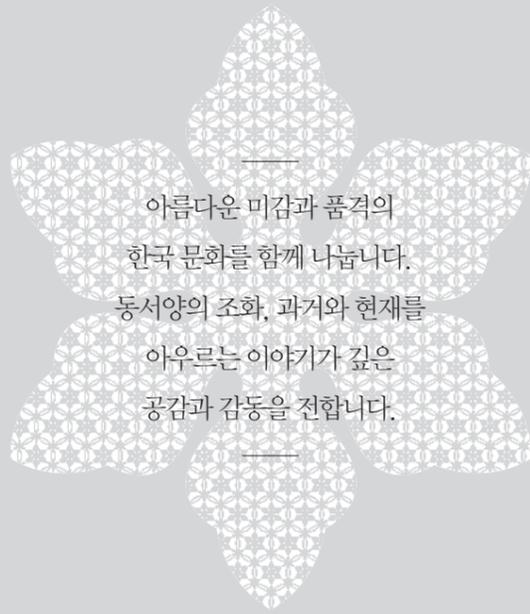
익 히 다

- 78
배움의 기쁨
쓰임새와 아름다움, 상징의 합일
- 82
한국의 멋
고귀함 드러내는 사뿐한 걸음걸음
- 84
설화애장
색색을 이어 꾸리는 생생한 삶
- 86
읽다
조선 최고의 해학, 오늘의 감각을 만나다
- 90
집 안 단장
온기와 감성이 더해진 다정한 겨울
- 92
몸 단장
꽃과 색의 찬미

- 94
프로덕트맵
- 97
문화 즐기기
- 98
독자 선물

발행일: 2019년 1월 1일(통권 제89호)
발행인: 안세홍 편집인: 강병영
발행처: (주)아모레퍼시픽 기획 및 제작: 설화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이은주, 이솔)
제품 문의: 고객센터(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편집: 디자인: 가야 미디어 02)317-4921 편집: 박홍성, 민소연 디자인: 이영보
사진: GURU visual 02)747-6123 시스템 출력: 덕일 인쇄 (주)태산인쇄 02)853-6574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www.sulwhasoo.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감과 품격의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눕니다.
동서양의 조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깊은
공감과 감동을 전합니다.



펼
치
다

진주처럼 환하고 백합같이 깨끗한 As Bright as Pearls and as Clean as Lilies

티 없이 희고 깨끗한 얼굴은 누구나 얻길 바라는 꿈과 같지 않은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수없는 방도가 궁리되고 정성스레 행해지고 있다.

글 민소연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동서고금의 수많은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미인은 대개 깨끗하고 흰 피부를 가지고 있다. 미인에 대한 동양과 서양의 기준은 다른 점이 많지만, 밝고 건강한 피부를 바란다는 점은 거의 같을 터이다. 다만 창백할 정도로 희디흰 서양의 안색과는 달리,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피부는 복숭아 같은 연분홍 혈색이 살며시 스친 것에 가깝다.

흰 피부에 대한 열망은 이미 고조선 시대부터 존재한 듯하다.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으며 100일을 동굴 속에서 견뎌야 했던 단군신화를, 이상적인 여인이 되기 위해 흰 피부를 가꾸는 테스트로 바라보는 해석도 있다. 쑥을 달인 물에 목욕하거나 짓찧은 마늘을 꿀에 개어 얼굴에 바르고 씻어내어 미백효과를 보려 했던 오랜 민간요법을 보면 납득이 가는 추측이다.

한편 신라시대에는 백분(白粉)의 사용과 제조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다. 한 승려가 효소왕 1년, 692년에 일본에 연분(鉛粉)을 전해주었다는 기록이 있어, 그 이전부터 연분을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분은 쌀 등의 곡식이나 분꽃씨의 분말, 조개껍데기를 태워 뿜은 분말이나 활석의 가루로 만들었다. 고려시대에도 흰 피부를 가꾸기 위한 여러 방법이 모색되었다. 전신 목욕이 유행하였으며 특히 상

All of the beautiful women appearing in the countless pieces of literature in the East and in the West have clean, white skin. There are different standards of beauty in the East and in the West, but people in both cultures wish for healthy, bright skin. Unlike the pale-white complexion of the West, however, the beautiful complexion we desire in the East is the peachy skin tone that is full of vitality.

The wish to have white skin seems to have existed since the ancient age of Gojoseon. The Mythology of Dangun tells a story of a bear and a tiger that had to stay in a cave for 100 days, eating only mugwort and garlic, while some people interpret it as a test on having beautifully white skin and becoming an ideal-looking woman. It is understandable because there are traditional folk therapies of bathing in mugwort brewed water, or applying mashed garlic with honey and washing it off for skin whitening.

In the Silla Dynasty, the techniques for using and producing white powder developed



진주의 영롱하고 오묘한 색감을 자연스러운 흙의 형태와 함께 표현한 항아리와 굽점시, 불, 점시는 모두 이혜미 작가의 'jinju'.
각진 굽 백자 잔은 전상근 도자기 아이보리색 페인트는 던에드워드 논현점의 'DE 6120'.

류층에서는 갓난아이를 복숭아나 백합 꽃물에 목욕시키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도 역시 흰 피부를 선호했다. 내면과 외면의 미를 동일시하며 항상 청결과 바른 몸가짐을 지키려 했던 풍조는 피부의 정결함에 큰 가치를 두었다. 기미나 주근깨, 흉터가 없는 투명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단방이나 미안법이 등장하여, 많은 여인들이 피부 가꾸기에 공을 들였다. 지금의 로션과 같은 기능을 하는 미안수를 만들어 발랐고 꿀 찌꺼기를 얼굴에 바른 후 일정 시간이 지나 떼어내는, 지금의 팩과 같은 요법도 유행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오이 꼭지를 얼굴에 문지르기도 했으며, 쌀겨나 녹두가루로 세안을 하며 깨끗한 피부를 지켰다.

특별한 신분의 여인에게 진주는 장신구일 뿐만 아니라 사치스러운 미백 재료이기도 했다. <동의보감>에는 진주의 피부미용 활용법에 대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외형편』 '면문' 단방에서 진주에 대해 "주근깨 반점을 제거하여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안색을 좋게 해준다. 가루 내어 분말로 해서 젖과 섞어 항상 발라준다."고 소개했다. 또한 왕족이나 귀족들은 진주가루를 분처럼 발라 화장을 하기도 했다고 전한다.

설화수의 자정 브라이팅 쿠션 역시 백삼과 백합꽃 추출물이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하여, 안색을 환하게 밝혀준다. 또한 진주모 콤플렉스의 다각도 빛 반사로 화사함을 넘어선 진주빛 광채 피부를 완성해준다. S

자정 브라이팅 쿠션

진주빛 광채로 피부를 환하게 밝혀주고 투명한 순백의 피부빛을 선사하는 자정미백 쿠션 백삼 추출물과 백합꽃 추출물이 피부 속부터 반사광을 밝혀 도자기처럼 매끈하고 깨끗한 피부로 표현하며 피부를 맑게 정화해 투명한 안색으로 관리해준다. 얇고 균일하게 밀착되는 커버력과 공기처럼 가벼운 사용감은 본연의 피부인 듯 자연스럽고 화사한 톤업 효과를 선사한다. 14gX2 6만8천원

significantly. Considering the record that a Buddhist priest transmitted the face powder to Japan in the year 692, the 1st year of the reign of King Hyoso, it is assumed that the face powder has been used before. The white powder of that time was made with grains, such as rice, powder from seeds of flowers which blossom at four o'clock, powder from burnt seashells, or powdered talc. They continued to seek various ways to achieve beautifully white skin in the Goryeo Dynasty. They enjoyed full-body baths, as upper class families particularly bathed newborns in the flower water of peach blossoms or lilies.

White skin was still preferred in the Joseon Dynasty. They formulated and applied Miansu as today's lotion, and enjoyed applying honey residues on the skin and removing them after a while, like today's wash-off masks. The easiest tips included rubbing the face with cucumber tips, and cleansing the skin with rice bran or mung bean powder. For women in special classes, pearls were not only regarded as valuable accessories, but they were also extravagant whitening materials. <Donguibogam> clearly introduces how pearls can be used for skincare. The 'Myeonmun' Section of 『The Book of Appearance』 introduces pearls: "Pearls remove freckles on the face to refine the skin, and beautify the complexion. Grind them into powder, and mix with milk to apply all the time." Also, royal families and the nobles wore pearl powder as face powder for makeup.

Sulwhasoo's Snowise Brightening Cushion is also formulated with white ginseng and lily extracts to clarify the skin and gain a brighter complexion. Furthermore, Mother-of-pearl complex EX reflects light in all directions, so the skin can appear bright and clear from any angle.



자개 실버 트레이와 코스터는 모두 장혜경. 마정기 작가 by FCT.
테두리에 자개 장식을 한 이중합은 전상근 도자기.



고귀한 적송의 생명력이 젊은 피부로 일깨우다 The Vitality of Precious Red Pine Awakens Youthful Skin

한결같이 젊은 피부는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다. 설화수는 이 꿈을 위해 강인한 생명력을 품은 적송을 귀한 정성으로 담은 진설 라인의 힘을 더 끌어올렸다. 진정한 명품이 선사하는 토털 안티에이징은 변치 않는 감동을 선물한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리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한 번 시작된 피부 노화는 주름과 탄력 저하, 칙칙한 피부색 등 연속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진정한 안티에이징은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관리하는 것이다. 설화수는 50년의 한방 원료 연구와 첨단 피부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진설 라인을 선보여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노화의 증상을 세심하게 관리해왔다. 2006년 첫선을 보인 후 끊임없는 진화를 거듭한 진설 라인은 2019년을 맞아 한층 깊어진 효과와 함께 업그레이드되었다. 진설 라인의 핵심 성분은 '적송赤松'으로부터 얻은 피부 생명 강화 안티에이징 성분인 DAA이다. 한국 소나무 가운데 최고의 명목으로 꼽히며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적송 속에만 극미량 존재하는 DAA는 피부 장수인자를 증가시켜 피부 생명력을 강화하고, 피부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해 노화된 피부를 개선하고 잃어버린 피부 탄력을 되찾아준다.

Once skin aging begins, it continuously triggers various problems, such as wrinkles, loss of resilience, and dull skin tone. Therefore, true anti-aging regimen is taking good care of the skin fully and completely. Sulwhasoo has presented the Timetreasure Invigorating Line, based on 50 years of research of Korean herbal medicine ingredients and advanced skin science technology, to address continuing symptoms of aging. Since it was first released in 2006, the Timetreasure Invigorating Line has evolved on several occasions. Greeting the year 2019, it has been further upgraded with even deeper efficacies. The main ingredient of the Timetreasure Invigorating Line is DAA, the skin-fortifying, anti-aging substance acquired from the 'Red Pine' with red stems and green leaves. DAA is found

진설크림

2019년에 한층 더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로 진화한 진설크림은 피부 생명력을 강화하는 적송의 DAA 성분을 고농축 함유해 손상된 피부를 복구하고 피부 장수인자를 활성화시킨다. 여기에 청정 환경에서 키운 10년근 산양삼 추출물을 더해 피부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탄력과 주름을 개선해 노화의 흔적을 지운다. 적송의 생동감 넘치는 향은 기분을 상쾌하게 케어하고, 풍부한 크림 텍스처는 피부 밀착력을 높여 세월의 흔적을 지우고 탄력을 선사한다. 60ml 47만원



질은 그레이 톤과 골드 마블링이 상감으로 표현된 화병은 양지운 작가, 무광의 브라운 톤 이크릴 오브제는 윤라희 작가.

세포 간의 결합력을 높여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드는 역할도 한다. 적송의 단단한 껍질에서 얻은 RPPC 성분은 이미 노화가 진행된 피부를 효과적으로 케어해 젊어보이는 피부로 되돌려 준다. 이처럼 신비로운 힘을 지닌 적송의 진귀한 처방은 설화수가 집념과 기술력으로 얻어내 새로워진 진설 라인에 담겨 토털 안티에이징을 선사한다.

설화수는 적송에서 발견한 DAA 성분을 설화수만의 포제법인 '취송정법'으로 11단계에 이르는 정제 과정을 거쳐 적송 솔잎에 극미량 존재하는 DAA 성분을 추출하고, 나노 캡슐화 기술로 적송의 생명력을 피부에 고스란히 전한다. 새로워진 진설 라인에는 10년근 산양삼이 더해져 피부 생명 에너지를 증폭시킨다. 종자를 직접 산에 파종하여 자연 상태 그대로 키워낸 산양삼 추출물은 피부에 필요한 에너지를 풍부하게 공급하여 나약해진 피부의 힘을 키워준다.

진설 라인의 대표주자인 진설크림은 고농축 적송 성분과 청정 자연에서 재배된 산양삼의 응축된 생명 에너지를 오롯이 담아 더욱 값진 안티에이징 경험을 선사한다. 시간을 되돌린 듯 흔들림 없이 탄탄한 피부와 함께 리프팅 효과를 선사하여 활력 넘치는 건강한 피부로 가꿔준다. 생동감 넘치는 적송의 향과 풍부한 크림 텍스처는 피부에 힘있게 밀착되어 탄력과 주름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노화의 흔적과 요인을 총체적으로 케어하고 피부의 힘을 끌어올려 주는 진설크림 덕분에 한결같은 젊음과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행복한 현실이 되었다. S

in an extremely small amount in the Korean Red Pine, which is known as the best among the best pine trees in Korea because of its powerful vitality. It multiplies the longevity factors of the skin, fortifying its vitality, removing impurities to correct aged skin, and restoring resilience. It can also strengthen the bond between cells for firming and lifting. RPPC, acquired from the bark of Red Pine, replenishes the skin with young, healthy skin.

Sulwhasoo applies the original POJE Optimizing Process™ 'Red Pine Concentration Process™' in creating the Red Pine DAA through 11 steps of refinement to extract DAA, which is found in extremely small amounts in Red Pine needles, and delivers to the skin the vitality of Red Pine through Nano Encapsulation Technology. The new and improved Timetreasure Invigorating Line amplifies the energy of vitality with the 10-year-old Wild Simulated Ginseng. The extracts of Wild Simulated Ginseng, which is planted in the woods to grow in the natural state, enrich the energy that your skin needs to fortify weaker skin.

Timetreasure Invigorating Cream, the signature product of the Timetreasure Invigorating Line, provides an even more fascinating anti-aging experience with highly concentrated Red Pine extracts and the condensed energy of Wild Simulated Ginseng that is naturally grown in nature. It firms and lifts the skin timelessly as if turning back time to obtain healthier skin that is full of energy. The invigorating scent of Red Pine and its rich, creamy texture adhere to the skin to bring about resilience and effective correction of wrinkles. With Timetreasure Invigorating Cream ensuring comprehensive care of the traces and factors of aging and fortification of the skin, the wish to have consistent beauty and healthy skin is no longer a dream, but a reality.

진설 라인
스킨케어 루틴
Timetreasure
Invigorating Line
Skincare Routine



진설 라인은 피부 컨디션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루틴으로 사용해 안티에이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기본 케어는 아침과 저녁 세안 후, 위의 제품 순서대로 사용하는 스킨케어 루틴을 추천한다. 안티에이징 효능을 더 강화하고 싶다면 저녁 세안 루틴에서 크림 후 진설마스크를 사용해 나이트 집중 케어를 하면 완벽한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을 경험할 수 있다.



기호에 담긴 보편적 메시지를 발신하다

Kang Jun Young

현대 미술가 강준영

그는 도예가로 불리기를 꺼렸다. 도예를 전공했고, 도자를 매체로 삼지만 평생 성실하게 흙만 탐구하는 도예가들에게 누가 된다고 생각해서다. 12년째 작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는 자신이 어디쯤 걷고 있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어디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안고 그를 만났다.

글과 진행 최태원 사진 한수정(Day40 스튜디오)

‘도자기 페인팅’이란 파격적 방식이 작가님을 대표하는 작업 방식으로 보이는 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긴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도자 페인팅은 제 ‘가족사’와 ‘성장사’의 만남입니다. 저는 3대가 함께 살던 집안의 장손인데, 입대 후에 갑작스럽게 조모님이 작고하셨어요. 워낙 큰 사랑을 받고 자란 터라 상심이 컸던 저는 할머니의 손때 묻은 뒷마당 항아리에 페인팅을 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추억했죠. 나중에 유약과 안료가 바뀌었지만 그것이 제 도자 페인팅의 시작인 셈입니다.

도자기에 그려진 그림이 흔히 봐온 화초가 아니라 그래피티를 연상시킨다는 점이 이채로운데요?

1979년생인 저는 미군 방송(AFKN)을 통해, 지금도 존경의 마음을 접지 못하는 마이클 잭슨이라는 걸출한 아티스트를 만났고, 그를 통해 소외받은 자들의 문화인 흑인 문화에 경도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조부모님과 아버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집을 부려, 중학교 1학년은 마

It seems that you are represented by a rather radical ‘porcelain painting.’ What was your inspiration? To make a long story short, porcelain painting is a product of my ‘family’ and ‘my childhood.’ I was the eldest son in my family where three generations lived together. My grandmother passed away unexpectedly when I left to fulfill my military duties. I was really frustrated because she gave me more love than I had deserved. I honored her memory by painting the jars she used to keep in the backyard. Later, I changed the lacquers and pigments I use, and it was the beginning of my porcelain painting.

It is unique that the images on the porcelain is not the flower pots you see everywhere, but graffiti. I was born in 1979, and I was introduced to this magnificent artist, Michael Jackson, whom I still respect with all my heart, on AFKN, the channel of the U.S. Army in Korea. I began admiring the African-American culture, the culture

치고는 홀로 유학길에 올랐으니깐요. 물론 예술에 대한 제 열망을 인정해주신 어머니의 적극적인 지지의 힘이 컸죠. IMF 경제위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귀국할 때까지, 그토록 동경했던 비주류 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일련의 경험과 과정이 지금의 형태로 표현된 것입니다.

혹시 도자라는 매체의 한계를 느끼신 적은 없나요?

사실 '도자 페인팅'이란 형식은 결코 제가 처음 시도한 파격이 아닙니다. 피카소나 키스 해링 같은 수많은 현대 미술가들이 도자기를 캔버스 삼았으니깐요. 그래서 저도 그 방향으로 걸을 수 있겠다는 답을 얻었고, 아직까지도 할머니의 유산처럼 시작된 이 작업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양 '백자'와 서양 '페인팅'의 만남은 이종異種 결합이란 측면에서 신선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안에 담긴 메시지에 더 눈길이 갑니다.

저는 메시지의 발신자는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전달자에 가깝죠. 예를 들어,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들의 철학자로 불리는 폴 틸리히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대신 읊기는 정도니까요. 다만 그런 작업의 연계 속에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곤 합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경로나 위로 같은 대부분의 메시지는 결국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속성과 맞닿아 있다는 정도의 깨달음 같은 거죠.

작가적 유머, 혹은 페이스스를 '똥장군' 시리즈에서 보았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유년기를 보내게 해주신 부친이 작고한 이후, 저의 시선은 곧장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과 집단으로 향하더군요. 그러다가 불현듯 제가 다루는 도자기 중에도 하위계층으로 불릴 만한 것은 없을까, 찾게 되었고 그렇게 발견한 것이 예전에 거름을 옮길 때 쓰던 똥장군입니다. 쓰임새 면에서 가장 천대받았던 똥장군을 옹기가 아닌 최상급의 백자로 만드는 것 자체가 파격이자 전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흑인 문화라는 비주류에 몰두했던 관심사의 연장선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2006년 쌈지에서의 첫 개인전 이후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환기일 수 있을 텐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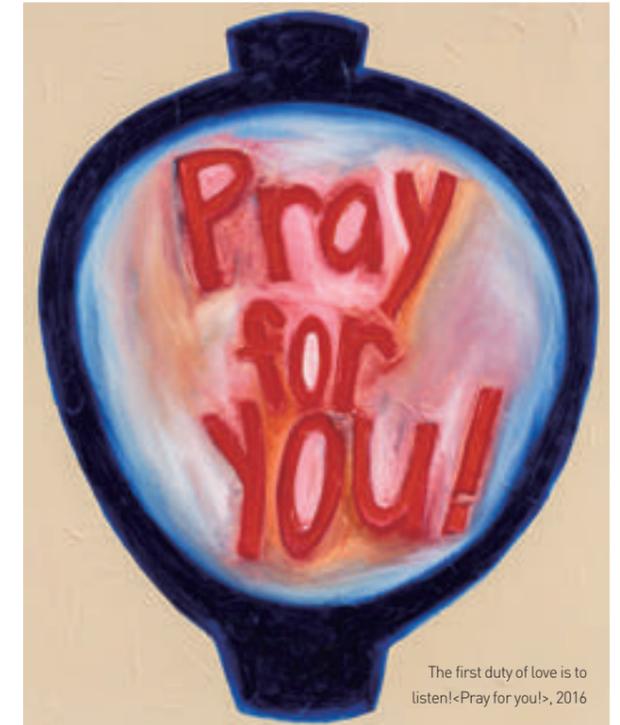
작가로서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과 '결혼과 육아'라는 개인사의 변화가 겹치면서 고민하게 된 키워드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작가는 자신의

of the isolated. I confronted the opposition of my grandparents and my father, and finally succeeded on leaving Korea to study abroad after finishing my 1st year in middle school. My mother gave me all-out support, acknowledging my passion for art. I had the best time of my life, and I was able to enjoy the non-mainstream culture I had admired until I had to get back to Korea in the senior year of high school due to the IMF crisis. All of these experiences and procedures have contributed to the way how I express myself today.

Have you ever experienced the limitation of porcelain as a medium? 'Porcelain painting' is not radical, and I am definitely not the first one to do it. Many contemporary artists such as Picasso and Keith Hering have used porcelain as canvas. That is why I was convinced that I could walk that path, and I think I still have a lot to say through this project, which is like an homage to my grandmother.

The blend of Asian 'porcelain' and Western 'painting' is unique because it is the combination of heterogeneity. However, the message within is more catchy. I am not the sender of the message. I am more like the messenger. I just deliver the messages of the people I admire, such as Paul Tillich who is known as the 'philosopher of theologians.' I often get myself awakened through that process. The awakening is something like the realization of the fact that most of the messages of warning or consolation from one human being to another are related to the human attribute of pursuing happiness in life.

I witnessed your sense of humor or pathos in the 'Fertilizer' Series. After my father, who supported me with financial abundance when I was a child, passed away, my attention immediately went to socially isolated neighbors and groups. Then it occurred to me which kind of porcelain is considered low in class. Then I discovered the jar, which was used to transport fertilizers in the ancient times. I thought it was radical, and an idea outside the box to make this jar with the highest quality white porcelain. You can understand it as an extension of my interests in the non-mainstream African-American culture.



유년 시절 호주 유학을 통해 팝과 스트리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강준영 작가의 취향은 도자기와 페인팅, 드로잉 등 다양한 작업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며, 알록달록한 색감과 과감한 붓 터치는 자유롭고 경쾌한 그를 닮았다.



우리가 선택한 기록이 사랑이 될무렵 (Y.O.U), 2017



우리가 선택한 기록이 사랑이 될무렵(OX의 기록), 2016

강준영 작가는 3대가 함께 살던 집안에서 자라 뒷마당 향이리에 페인팅을 하는 방식으로 할머니와의 유년 시절을 추억했고, 그렇게 도자 페인팅이 시작되었다.

계산과 계획, 의도를 시각 언어로 전달하는 행위자인데, 과연 나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작품에 임하고 있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전에는 대다수 작가들이 그렇듯 제 개인사를 <Pray for you>나 <꽃> 시리즈에 담았다면, 지금은 개인사를 벗어나 보다 보편적인 이야기를 사회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간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 같은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인생은 선택이라는 크고 작은 점들이 모여 만들어진 긴 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작업에서는 구체적 이미지와 언어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지금은 언어 대신 OX 같은 단순한 기호로 저의 발언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말, 서울 연남동 CR컬렉티브에서 열린 <오염>이란 전시회에 걸었던 작품들도 그런 쪽이죠. 분단의 대결과 반목이 우리 사회와 작가들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오염시켰나를 주제로 한 전시회였지요. 저는 유독 데모가 잦았던 연희동에서의 유년기 체험을 반공 포스터와 한반도 지도, 경찰차 등의 기호로 표현했어요. 최루가스 냄새를 막기 위한 입시방편으로 코밑에 발랐던 치약을 물감처럼 사용해서 말이죠. 올해 뉴욕에서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기획 당시만 해도 남북관계가 최악이었는데, 지금은 평화 무드가 무르익고 있으니 세상 참 알 수 없죠?

현재 계획 중인 전시가 있는지요?

아버지와의 추억과 가족에 그리고 낭만적 사랑 이야기를 담은 개인전을 열었던 김해 클레이아크 미술관에서 오는 4월에 열릴 그룹전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건축가셨던 아버지를 추념하는 또 다른 작품을 전시할 계획인데, 우리가 지난 시절 살았던 집의 변천사를 지역별, 시대별로 바라보는 건축 측면에서의 작업이라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아직도 인정하기 어려운, 부재중인 아버지를 소환하는 저만의 방식인 셈이죠. S

It has been 12 years since your first solo exhibition at Ssamzie in 2006. This could be the time for a change. What I am pondering at this point of change as an artist and as an individual while experiencing 'marriage and childbirth' is 'attitude.' An artist is an activist who conveys their calculations, plans, and intentions through visual languages, and I started contemplating my attitude toward my creations. Now I talk about more universal stories from a social perspective. For instance, I talk about human choices.

Can you elaborate that story? I have begun to think that life is a long line, made of differently sized dots of choices. I used to deliver clear messages with specific images and text, but now I use simple symbols, such as O and X, to convey my statements. You can see it in the pieces presented at the exhibition titled <Contamination> at the CR Collective in Yeonnam-dong, Seoul, last year. It was about how confrontation and antagonism of the division have distorted and contaminated the Korean society and artists, and with relevant symbols, such as anti-communist posters, map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olice cars, I expressed my childhood experience from Yeonhui-dong, where there were many protests. I used toothpaste, which was applied beneath the nose to block the smell of toxic gas, as paint. They will be exhibited in New York this year. North and South Korea had the worst relationship in history when I planned this series, but we are all nice and peaceful now. You cannot predict anything, right?

Is there a new exhibition coming up in the near future? I am planning to participate in a group exhibition to be held at Clayarch Museum in Gimhae in next April. It is also where I held my solo exhibition about my memories with my father, my love for my family, and my stories of romantic love. I am planning to exhibit other pieces in reminiscence of my father, who was an architect, and I hope you see it as a chronology of places where I lived during my childhood from the perspective of regional and historical architecture. This is my own way of summoning my father whose absence I still cannot admit.



삶을 짓는 아름다움

ONJIUM

온 지 음

경북공역에서 나와 청와대로 들어가는 효자로를 따라 한참 걸으면, 온지음에 다다른다.
 절제미가 엿보이는 흰 건물에 '온지음'이란 정갈한 간판이 오히려 눈길을 끈다.
 무심히 길을 지나던 사람도,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 호기심이 동할 것이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박혜숙



온지음에서는 전통의 아름다움이 현대와 만나 이루는 새로운 조화를 궁리하고 펼쳐낸다. 옷공방에서 발견하는 옛 바느질 도구며, 집공방에서 마주한 일인용 그늘막은 지금의 관점에서도 그 쓸모와 미적 요소가 새롭고 흥미롭다.



‘온전히 짓는다’는 뜻을 지닌 이름의 온지음은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 즉 옷과 밥, 집을 짓는 지혜를 전통에서 찾는다. “옛것을 바탕으로 바르고 온전하게 지금을 짓는다.”는 철학으로, 옷도, 밥도, 집도 모두 ‘짓는다’는 표현을 쓰니 그 무엇보다 맞춤형 이름이다. 온지음은 2013년 6월 화동문화재단 아래 전통문화연구소로 처음 문을 열고 우리의 전통문화에 담긴 가치와 정신을 이어, 현대화하는 일을 해왔다. 본래는 재단법인 아름지기와의 한 지붕 아래에서 연구했는데 지난여름 창성동에 더 넓은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전통을 공부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이에게 오롯이 전달하고자 하는 온지음의 의지는, 새로운 공간에서 보다 견고하게 자리하며 도약을 꿈꾸고 있다. 온지음의 공간은 온지음이 연구하는 옷과 밥, 집을 테마로 하여 구분된다. 옷공방, 맛공방, 집공방으로 꾸러진 각 공간에서는 한복과 한식, 한옥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전통 의식주를 연구한다. 공방은 역사와 이론의 전문가인 공방장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방장과 실무진들로 이루어져 있다. 1층 로비는 생활과 관련한 모든 것, 그러니까 삶의 총체적인 모습을 자

Onjium, which means ‘creating completely,’ finds the wisdom behind the basics in life—clothing, food, and housing—through tradition. Its philosophy is “to keep the present righteous and complete based on old materials.” This is the best term that allows you to ‘make’ clothing, rice, and housing. Onjium first opened as the Traditional Culture Research Center that is affiliated with Hwadong Cultural Foundation in June 2013, and has succeeded in modernizing the value and spirit reflected in the traditional Korean culture. It was originally under the same roof as Areumjigi Foundation, but it moved to a larger venue in Changseong-dong last summer. Onjium’s determination to study tradition and deliver it to present generations is growing more sturdily in the new space that is calling for bigger challenges. Onjium’s space is divided into different sections for clothing, food, and housing studies. The Clothing Studio, Food Studio, and Housing Studio focus on the traditional Korean culture represented

유롭게 연구하고 구현하는 장소다. 그동안 온지음이 해온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이 여러 다른 영역의 예술과 어우러져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펼쳐지기도 하고, 때론 맛난 요리법을 나누는 쿠킹클래스가 열리며, 온지음의 연구자들이 서로 활발히 강의하고 토론하는 배움의 장이 되기도 한다. 앞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기획이나 모임이 진행될 예정이라 하니 더 기대가 된다. 지하로 한 층 내려가면 집공방이 나온다. 온지음은 옛 전통 가옥을 연구하고 복원하며, 현대의 주거문화에 알맞은 한옥을 짓는 일에 오래 힘써 왔다. 이들의 열정은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한 방대한 자료와 책으로 대변된다. 일을 하는 공간은 아래쪽에 아늑하게 분리되고, 다 함께 모여 지혜를 나누는 회의실은 누마루처럼 높은 단 위에 위치한다. 투명한 유리 벽과 층고로 공간을 구분하여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안정감이 있다. 집공방 공방장의 방에 달린 양중맞은 미닫이 창호문이 이곳의 정체성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2층으로 오르니 옷공방이다. 이곳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전해지는 사료를 바탕으로 전통 복식을 연구하고, 그것을 토대로 옛 방식 그대로의

by Hanbok, Hansik, and Hanok, respectively. The studios are led by the chiefs who are experts in history and theories, and are run by chiefs and members with 10 or more years of hands-on experience. The lobby on the first floor is for studies and implementations of everything about life. Interesting projects of Onjium are turned into exhibitions that blend with various genres of art, cooking classes where tasty recipes are shared, and discussions where Onjium researchers actively share knowledge and information. If you go down a level, you will find the Housing Studio. Onjium conducted studies and restored traditional Korean houses, and worked on building Korean houses that suit modern lifestyles. Its passion is reflected in the enormous piles of resources and books that have filled an entire wall. The Clothing Studio is on the second floor. This place showcases traditional Korean costumes based on historical resources from the Age of the Three Empires, and reproduces traditional outfits based



온 지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49

문의 070-4816-6613

홈페이지 www.onjium.org



온지음의 공간은 의식주를 테마로 우리 고유의 소중한 유산을 가득 품었다.
그 위로 바깥을 둘러싼 공결과 자연의 풍광마저 고스란히 들어와 아름답게 어우러진다.

옷을 재현해낸다. 또한 현대적인 감성을 더하여 실제로 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한복을 짓기도 한다. 옷공방에 전시된 구의(가죽 방한복)며 배자(조끼 형식의 덧옷)는 단순히 전통의, 과거의 것이라고 하기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인 미감을 품고 있었다. 정교한 바느질과 구조적인 짜임새로 완성한 그 정성이,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뽐어낸다. 4층에 오르면 식욕을 자극하는 향기가 먼저 맞이한다. 맛공방이다. 맛공방에서는 오랜 조리사와 전국 곳곳에서 전승되고 있는 요리법을 연구한다. 또한 우리 땅에서 나는 향토색 짙은 재료와 전통 조리법을 접목하여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전혀 새로운 맛을 전하고 있다. 온지음의 맛공방 레스토랑은 과거 원 테이블로 운영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늘어난 테이블과 서비스로 더 많은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계절 향기가 가득한 특별한 밥상을 앞에 두고 탁 트인 경복궁의 전경을 마주하면, 수많은 시간과 공간과 사람이 중첩된 특별한 순간이 다가온다. 온지음에 잠시 머물다가 삶을 짓는 일에 대해 생각했다. 무엇이든 제대로 짓는 것은 어렵고, 어쩌면 그 어려움을 견디고 궁리하는 것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닌지. S

on the said resources. They also make modern Hanbok that can be worn every day. The Guui and Baaja exhibited in the Clothing Studio are so modern that you cannot even believe that they are traditional designs from the past. Elaborate sewing techniques and structural designs evoke timeless beauty. When you step onto the 4th floor, mouth-watering flavors will be greeting you at the Food Studio. The Food Studio features time-tested recipes throughout Korea. Also, native ingredients grown in Korean soil are used in traditional recipes to create tastes that are familiar to us, yet are completely different. Onjium's Food Studio Restaurant used to have only one table, but is now serving more guests with more tables on hand. You can relive a special moment countless times, as you look out on the open view of Gyeongbokgung Palace while indulging in the flavors of the season. I thought of how you should 'live' life while I was at Onjium. It is hard to produce anything perfectly, but beauty lies in how you endure and overcome hardships.

세상의 중심에서 피어난 설화수의 아름다움 The Beauty of Sulwhasoo Blooms in the Center of the World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D.C지만 세계의 수도는 '뉴욕'이다.
뉴욕의 중심에서 아시아의 지혜를 전하는 설화수의 발자취는 그래서 예사롭지 않다.
글로벌 브랜드로서 아름다운 역사이자 감동적인 여정이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서터스톡





늘 새로운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도시

〈티파니에서 아침을〉, 〈섹스 앤 더 시티〉 등 다양한 영화 속에서 뉴욕은 유난히 로맨틱하고 세련되며 우아한, 아름다운 도시로 그려졌다. 세계 증시의 45퍼센트를 움직이는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이지만 예술과 패션, 문화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뉴욕은 그 이름처럼 새로운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화수분 같은 곳이다. 브로드웨이에서는 연일 공연이 열리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고대 이집트 유물부터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300여만 점의 컬렉션을 갖춰, 세계 3대 미술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피카소, 샤갈, 고흐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소장한 구겐하임 미술관과 뉴욕 현대미술관은 뉴욕을 명실상부한 예술의 도시로 자리 굳혔다.

싱그럽고 활기찬 분위기로 대표되는 '뉴욕 패션 위크'는 2월과 9월 도시 곳곳을 신선한 패션 트렌드로 화려하게 채우며 생기 있게 피어난다. 세계의 중심, 세계의 수도인 뉴욕은 글로벌 브랜드들의 새로운 도전과 경쟁이 넘쳐나는 곳이기도 하다. 뉴욕의 중심인 맨해튼 5번가 고급 백화점에 입점했다는 것만으로 명품 브랜드로서 찬사와 인정을 동시에 받는다. 설화수는 2010년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에 뉴욕 1호점을 오픈한 후, 8년 만에 블루밍데일스 백화점에 뉴욕 2호점을 열어 격이 다른 아름다움과 함께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다.

뉴욕은 미국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자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인정받고 있다. 맨해튼의 초고층 빌딩 사이에 위치한 브로드웨이는 뮤지컬의 메카이고, 구겐하임 미술관과 뉴욕 현대미술관. 젊은 작가들이 자리 잡은 소호 거리는 실험적이고 새로운 작품들을 소개하며 뉴욕을 현대 미술의 중심지로 이끈다.

The city where new beauty blooms all the time

New York, as its name tells you, is an endless spring of new sources of beauty for those who love art, fashion, and culture. Performances are held every day on Broadway, while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one of the top three museums in the world, offers a collection of about three million artifacts, from ancient Egyptian relics to contemporary artworks. The Guggenheim Art Museum and the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boasting of collections by world-famous artists, such as Picasso, Chagall, and Van Gogh, have made New York by far the best city for art appreciation.

New York Fashion Week, known for its welcoming and uplifting ambiance, blooms so vibrantly. It fills the city with the latest fashion trends every February and September. New York, the center and the capital of the world, also showcases new challenges and competition among global brands. Any brand can be appraised and recognized at the same time when it is accepted into one of the high-end department stores at 5th Avenue in Manhattan. Sulwhasoo, known for its distinct sense of beauty and customer service, opened its first store in New York within Bergdorf Goodman in 2010, and its second store within Bloomingdale's eight years later.



뉴욕 맨해튼 내 설화수 매장 입점 지역

간간한 뉴요커의 생기 넘치는 피부를 책임지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리, 뉴욕 맨해튼 5번가는 굳이 뉴욕을 가보지 않았더라도 익히 들어온 패션과 쇼핑의 중심지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매장이 화려한 자태로 줄지어 이어지고, 100년이 넘는 전통과 역사를 가진 최고급 백화점들이 즐비해 있다. 2010년 그중에서도 입점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버그도프 굿맨에 첫 매장이 들어선 뒤, 설화수는 한방 원료과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한 뛰어난 효능이 극찬을 받으며 간간한 뉴요커들도 반하게 했다. 지난 11월 15일, 뉴욕 고객들의 큰 사랑과 기대에 힘입어 5번가를 대표하는 또 다른 백화점 블루밍데일스에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가 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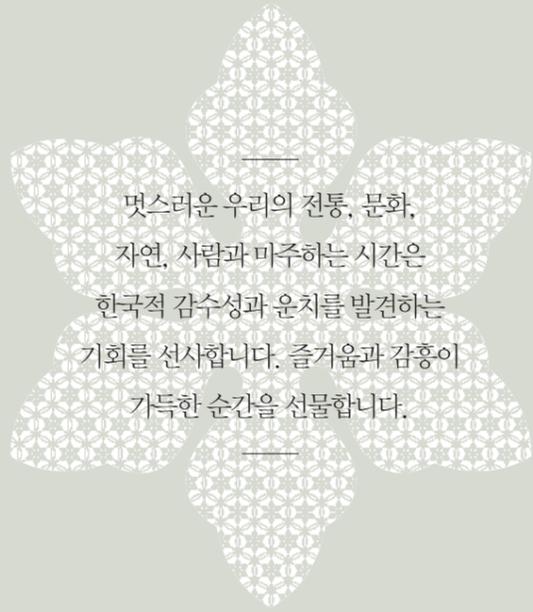
철저하게 검증된 세계 명품 브랜드들의 집결지인 최고급 백화점답게 매장 디자인은 고객의 발걸음을 자연히 멈추게 할 만큼 고급스럽고 매력적이다. 설화수의 로고인 매화 꽃잎을 유리로 섬세하게 표현한 샹들리에와 설화수의 지혜를 보여주는 한방 원료를 전시하여 눈길을 사로잡고, 모든 제품을 직접 테스트할 수 있도록 배치해 마음을 매료시킨다. 고객의 얼굴 마사지 서비스를 위해 새롭게 마련된 스파 룸에서는 바쁜 뉴요커들의 피부에 생기와 활력을 채워준다. 세계 패션과 뷰티의 메카인 뉴욕에서 찬란히 꽃피우고 있는 설화수 홀리스틱 뷰티는 조화와 균형을 통한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S

Taking care of the skin's vitality for meticulous New Yorkers

5th Avenue in Manhattan, the most expensive street in the world, is the center of fashion and is known as a shopping destination. There is an array of glamorous shops of the most high-end, premium designer brands in the world and department stores with over 100 years of tradition and history. Since opening its first store in Bergdorf Goodman, which is known for the most meticulous selection of brands, in 2010, Sulwhasoo has enticed the hearts of New Yorkers in particular, recognizing the exceptional efficacies of Korean herbal ingredients and scientific technology. Last November 15, the Sulwhasoo Flagship Store opened in Bloomingdale's, another representative department store in 5th Avenue, amid the love and anticipation of customers in New York.

Since it is a high-end department store that features only the most strictly selected, premium designer brands in the world, the store design is luxurious and attractive to lure customers. The glass chandelier delicately represents the plum blossom petals in Sulwhasoo's logo, while Korean herbal ingredients demonstrate the wisdom of Sulwhasoo. All products can be tested by customers. Also, there is a spa room for facial massages to replenish busy New Yorkers' skin with vitality and energy. Sulwhasoo's Holistic Beauty is blooming so splendidly in New York, the Mecca of fashion and beauty, and is under the bright spotlight to show that true beauty is based on harmony and balance.





멋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
자연,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은
한국적 감수성과 운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즐거움과 감동이
가득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구
미
다



뮤즈의 뮤즈
The Muse of the Muses

Kim Moon Jeong

뮤지컬 음악 감독 김문정

무언가를 조율하는 건 고단하다. 새해 나의 결심과 결심을 결심케 했던 과거의 습관을 적당히 조율하는 것도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곤 한다. 살을 빼겠다는 나와 먹겠다는 내가 양립하고, 이려다 큰일 난다는 나와 이쯤은 괜찮다는 내가 반목하면서, 이렇게 나 자신을 조율하는 것도 어렵고 어렵다. 그런데 김문정 감독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음악을, 음악과 음악을, 음악과 대중을 한손에 쥐고 평정한다. 가느다란 지휘봉으로, 아니 자그마한 체구에 숨겨놓은 어마어마한 내공으로,

글 이재영 사진 한수정(Day40 스튜디오)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김문정 감독은 뮤즈의 뮤즈이다. 뮤지컬 무대 위에 등장하거나 혹은 등장을 돕는 수많은 음악의 뮤즈들이 그녀를 원한다.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선보인 적 없는 뮤지컬이라도 김문정이라는 이름이 있다면 망설이지 않는다. 그녀와 함께하면 즐거운 모험이라도 되는 듯 흔쾌히 합류한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작품을 할 때 제가 세우는 원칙 중 하나는 ‘잘’ 하자예요. 후배들이나 제자들이나 스태프들에게도 늘 하는 말인데 ‘열심히’ 말고 ‘잘’ 하는 게 중요하죠. 특히 우리처럼 무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대는 성스러운 공간이잖아요. 가짜를 진짜처럼 보여야 하니까.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마술을 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완벽해져야 해요. 배우, 오케스트라, 조명, 분장, 음향 정말 모두가요. 선택되고 자격이 되는 사람만이 설 수 있는 자리이고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공간이죠.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무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해요.”

때문에 김문정 감독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본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알아두려고 한다. 감정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겁박하는 쪽보다 설명하는 것이 공동작업을 이끄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

“제가 선택한 건 부드러운 카리스마예요. 소리 지르거나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이해시켜서 서로에게 ‘잘’ 스며들게 하는 것. 모두 무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조금만 끌어내줘도 역량을 발휘하죠. 재

The one you want to work with

Director Moon Jeong Kim is the Muse of the Muses. She is sought after by countless muses of music who perform on stage, or help performers. Even if a musical has never been performed in Korea, people do not hesitate to take part in it when they see the name, Moon Jeong Kim. They join the team so willingly, as if it is an exciting adventure when she is around.

“Do they really think so? Then I'm really grateful. When it comes to work, one of my principles is to do 'well.' I always tell my juniors, trainees, and staff members to do 'well,' not just try 'hard.' It is especially important for those who work on or around the stage, like us. The stage is a sacred place. You have to make things real. Every one of us has to be perfect to do the magic and make it happen with the actors, the orchestra, the lighting staff, the makeup staff, the sound team, and everyone else. Only the chosen and qualified ones can be on stage, and it requires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So I try to respect those who work with me, and be thankful for the stage.”

That is why Director Kim always looks back on herself first. She tries to learn and remember more. She should have proofs, not just emotions. It is more effective to explain something than force it upon others when you are cooperating with them.

“I chose gentle charisma. I help them understand and blend 'well' with one another rather than yelling at them, or forcing them to do something. It's fun and interesting to discover and explore their potential.”





미있고 즐거워요.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현시켜주는 일이에요.”

물론 한 공연이 무대에 올려지기까지의 시간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주장이 싸움이 되고 그러다 의가 상할 때도 있다. 그래도 다행히 모두 뱃길이 어디인지 알고 있다. 폭포수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밀려가진 않는다. 한 사람이라도 ‘꽝’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균형이 깨지기 쉽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환상적인 놀이동산을 만들어보라고 다독인다.

다양한 김문정 그러나 한국의 김문정

김문정 감독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고민했다. 뮤지컬 음악감독이면서 초연 작품의 음악을 담당하는 음악 슈퍼바이저이자 뮤지컬 작곡가이고, 또 제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하며 방송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이 되기도 했다. 하나만도 어려운 일을 그녀는 끄떡없이, 아니 즐겁게 해낸다.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일이 많아지고 갈수록 많은 작품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갈수록 일하는 게 덜 힘들어요. 익숙해져서는 아니고 밀당이 가능해진 것 같아요.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일에 끌려갔다면 지금은 강약 조절이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일이 더 재미있고 수월해졌어요. 바쁘고 힘들어서 어찌냐고 걱정하는 소리도 듣는데, 좋으니까 가능하죠.”

오스카 와일드의 유미주의를 함축한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 국내 창작 뮤지컬로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아름다운 선율에 많은 이가 깜짝 놀랐다. 적재적소에 어울리는, 때로는 퇴폐적이고 때로는 감미로우면서 때로는 아련한 음악은 작곡가 김문정의 작품이었다.

A variety of people named Moon Jeong Kim, but Korea's Moon Jeong Kim

I didn't know how to call Director Kim. She is a music director for musicals, a music supervisor and composer for creative musicals, an instructor to many music students, and an evaluator for a broadcasting show.

“I have a lot of work, and I work on more pieces. What is interesting is that it is less exhausting over time. It's not because I'm accustomed to it, but I think I have learned to manage it. When I was a newbie, I was dragged by it, but now I can control it. So I get to enjoy what I do, and it feels easier to do as time passes.”

When <The Picture of Dorian Gray>, which implies Oscar Wilde's aestheticism, was released as a creative musical in Korea, many people were astonished by its beautiful melodies. The decadent yet mellow, lingering music that was played at the right time was one of her works.

“The music director works as a bridge to connect the stage, the orchestra, and the audience. This is the work of the field director. However, I am still thirsty about interpreting the music. The music supervisor, on the other hand, creates the overall composition of the creative performance, and its concept is a little broader than that of the music director. The supervisor

“음악 감독은 무대와 오케스트라와 관객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요. 현장 감독의 역할이에요. 하지만 곡 해석에 한계가 있어서 갈등이 좀 있어요. 반면 초연 작품을 무대에 올릴 때 공연의 구성을 함께 만드는 음악 슈퍼바이저는 음악 감독보다 조금 확장된 개념이에요. 이미 나온 곡을 최상의 효과가 나도록 정리하고 편집하죠. 이 또한 생동감 넘치는 작업이에요. 작곡은 또 다른 장르라고 생각해요. 혼자 견뎌야 하죠. 하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서두르는 건 아니지만 그녀는 더 많은 일을 해보고 싶다. 음악이라는 유연제 속에 담금질된 김문정의 꿈이 계속해서 유연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더 많은 작품을 쓰고 싶다. 소극장 작품도 써보고 싶고, 어느 누구도 걷지 않은 길을 걷고도 싶다. 그러나 무엇보다 새해가 되면 잊지 않고 꼭꼭 눌러 새기는 꿈이 있다. 우리의 음악을 계대로 공부해보는 것이다.

“서편제 초연을 무대에 올렸는데, 한국의 음악인으로서 정체성을 고민하는 기회가 됐어요. 우리 음악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느꼈고 반성도 했죠. 장인으로 거듭난 송화를 보면서 평평 울었어요. 이렇게 설화수처럼 전통에 대한 방향을 잘 지켜가는 브랜드를 보면 또 생각하죠. 나의 방향성에 대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늦지 않게 꼭 공부해보려고요.”

해를 보내고 맞이할 때 우리는 의식처럼 무대를 찾는다. 설렘과 두려움으로 소용돌이치는 마음은 그녀의 지휘봉 아래 균형을 찾고 우리는 잠시 편안하고 행복해진다. 그래서 매년 고맙다. 한결같이 자신의 자리에서 할 일을 다하는 김문정 감독이. S

organizes and edits the existing music to enhance the effect. This is also very exciting. I think composing is a whole different story. You have to endure it all, but it is truly valuable for sure.”

She wishes to create and compose more pieces. She hopes to write music for small theaters, and walk down a path that nobody has walked on before. However, she never forgets to make a special resolution every New Year. She wants to study music from the basics.

“When we premiered Seopyeonje, I pondered my identity as a Korean musician. I thought about the value and the importance of Korean music, and looked back on myself. I cried my eyes out looking at Songhwa, who became a master. Any brand that upholds its view toward tradition like Sulwhasoo motivates me to think about my view, and what I should do in the future. I want to go back to study before it's too late.”

When it is time to say goodbye to the past year and greet the New Year, you get the urge to watch a show on stage. You endure the passage of time that you cannot control through the beautiful work of art created by mankind. Your agitated mind, filled with excitement and fear, regains its balance beneath her conducting baton, and leaves you feeling comfortable and happy instantly. That is why you feel thankful every year—for Director Moon Jeong Kim is still around doing her jo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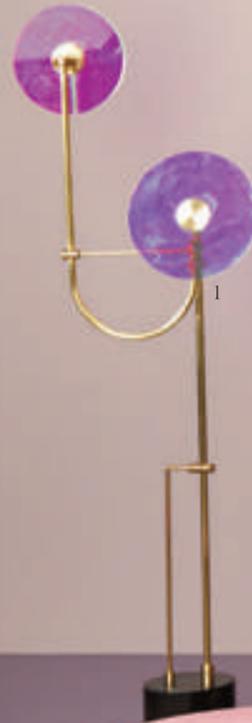
메이크업 조원경(엔플로에) 헤어 희린(엔플로에) 스타일리스트 안수명 도움 주신 곳 구호(02-726-4950), 타라자몽(02-546-7764), 지고트(02-726-4502), 래트바이티(1800-5700), 블랙뮤즈(02-545-3127), 폴브리알(080-850-2580), 스타일난다(0502-707-8888), 모노독시(1600-4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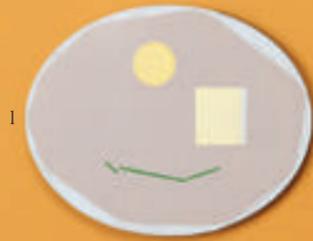
예술이 내려앉은 아름다운 자리

우리는 온종일 다양한 의자에 앉는다. 어떤 의자는 오래 앉아 일하는 이에게 맞춰 편안하고 좋은 자세를 취할 수 있고, 어떤 의자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 머무르기도 한다. 카페에서는 가장 편안해 보이는 의자를 찾아 자리를 정하고, 퇴근 후 폭신한 소파에 앉아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선물한다.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의자는 다양한 모습과 쓰임새가 있다. 그중에서도 공예 작가들을 만나 예술 작품으로 거듭난 의자가 있는 공간은 일상과 예술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리가 된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1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rainbow' 플루어 램프는 권중범 작가. 2 소중한 것을 담은 작은 항아리를 뜻하는 순우리말 '단지'에서 디자인을 따온 '단지 체어'는 박상호 작가 by 빈앤코. 3 테라조 콘크리트 소재의 분홍색 테이블은 김동겸 작가 by 스튜디오 미콘. 4 주황색 솜털 옷칠 매트 는 허명욱 작가 by 조은속갤러리. 5 겸재 정선의 그림이 모티프가 된 차 도구 세트는 전하람 작가. 6 황동에 옷칠을 한 트레이가 돋보이는 '2 Weeks Stool'은 가구 디자이너 소동호, 금속공예가 김윤진의 협업 작품. 7 굵이 있는 큰 불은 오선주 작가. 8 수채화가 번지는 듯한 패턴이 그려진 베이지 톤 'Porcia' 카펫은 유앤에스. 9 순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표현한 나무 의자는 신동우 작가 by MARGO 우드스튜디오. 10 사방탁자와 병풍을 조합한 '아티션'은 박상호 작가 by 빈앤코. 11 손잡이가 달린 베이직색 저그는 에프클레이. 12 전통 도자기의 형태에 몰드 접합선을 남겨 현대적인 감성을 더한 화병은 모두 김나임 작가. 13 '은유적 사물' 시리즈의 도자기 화병과 손잡이 바꾸니는 모두 전하람 작가. 14 그레이션 패턴이 그려진 아크릴 거울은 도한걸 작가. *연보라색 벽은 DE6038, 겨자색 벽은 DE5298로 모두 던에드워드 노현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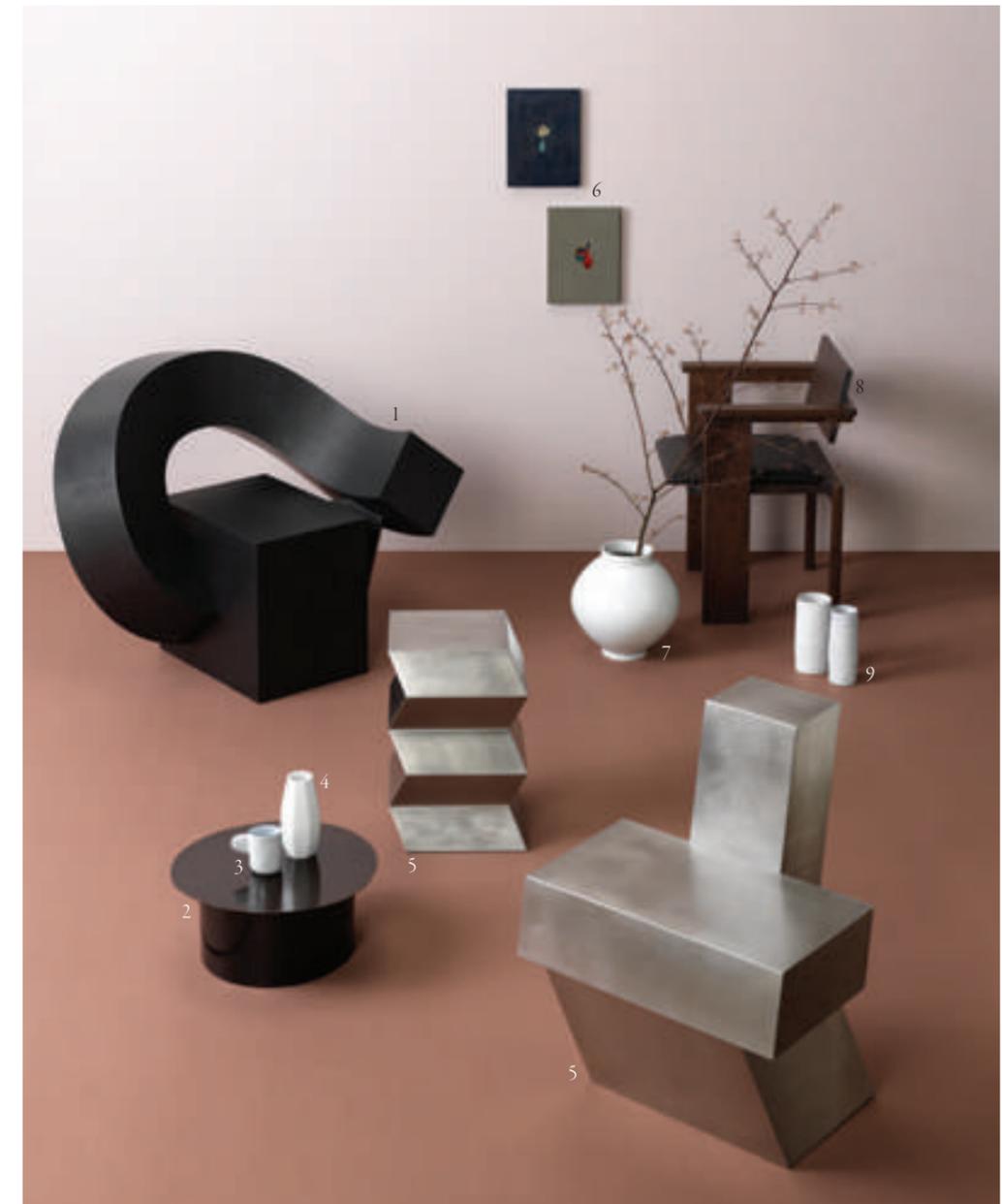
왼쪽 페이지 1 도형이 그려진 유화 작품은 최경주 작가 by AP Shop, 2 노란색 쿠션은 FIVE&DIME, 3 기하학 패턴의 카펫은 FIVE&DIME, 4 자연스러운 흙의 느낌을 살리고 파스텔 톤의 기하학 패턴을 그린 도자기 의자와 고양이 오브제는 나정희 작가 by 나작가 세라믹, 5 폼에 레진을 여러 겹 덧칠해 무게가 가벼운 핑크색 책상과 스톨은 장혜경, 마정기 작가 by FCT, 6 '푸르초삼' 시리즈의 팬꽂이와 오브제는 모두 도한걸 작가 by 모조산업, 7 연보라색 두껍의 옷칠 도사릭은 여비진 옷칠스튜디오, 8 세라믹 소재의 'One Fine Dish' 스톨은 아티스트 프루프 x 프린트 베이커리 by AP Shop, 9 3D 프린팅 후 옷칠로 포인트를 준 'Bubble Series' 컵과 화병은 류중대 x 유남권 작가.

오른쪽 페이지 1 서예의 붓 터치에서 영감을 받아 자유로운 곡선의 형태로 디자인한 'Cube merged Chair'는 광철안 작가, 2 검은색 옷칠 소반은 허명욱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3 귀가 달린 에스프레소 잔은 백경원 작가, 4 각진 백자 화병은 전상근 도자기, 5 스테인리스스틸 소재의 'Layered' 스톨과 체어는 황형신 작가 by 지갤러리, 6 옷칠 액자는 여비진 옷칠스튜디오, 7 달항아리는 조은숙갤러리, 8 직각 손잡이가 독특한 다이닝 체어는 크래프트브로 컴퍼니 X 에리어플러스 by AREA+, 9 두 가지 크기의 백색 화병은 백경원 작가.



의자로 꾸미는 아트 라운지

온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손님을 접대하는 거실은 멋있게 꾸며지기 쉬운 공간이다. 집의 얼굴인 거실에 생기 있는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디자인 체어의 힘을 빌리면 된다. 고급스럽고 우아한 멋, 독특한 디자인과 소재의 의자는 감탄을 자아내는 아트 라운지로 꾸며준다. 아이가 사용하는 공간에서도 공예가들이 만든 재미있는 의자는 무한한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준다. 아이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만들고, 예술 감각도 일찍부터 심어줄 수 있다.



실용과 예술을 모두 껴안은 스톨

등받이와 팔걸이가 없이 좌석만 있는 스톨은 이동하기 쉽고 만들기도 간편한 실용적인 의자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작은 테이블이나 선반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의자와 수납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 좁은 공간에서의 쓰임새가 좋다. 좌석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다채로운 시도가 가능해 공예가들도 스톨을 많이 선보인다. 다양한 소재와 상상력이 더해진 스톨은 실험적이고 참신한 디자인으로 공간을 윤택 있게 꾸며준다.



왼쪽 페이지 | 한강 교각의 형태를 조형적으로 재해석한 우드 스톨은 송기두 작가. 2 굴곡진 면과 시선에 따라 다양한 입체 모양을 보여주는 스톨 겸 오브제는 조병주 작가. 3 빨간색 옷칠 오벌 접시는 장성우 작가 by KCDF 갤러리숍. 4 디지털 스푼과 포크는 강희성 작가 by AREA+. 5 카키색 솜털 매트 는 허영욱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6 오벌 형태의 연보라색 옷칠 접시는 박수이 작가 by AREA+. 7 아이보리색 에스프레소 잔과 소서는 AREA+. 8 민화를 바탕으로 자연의 그림을 재해석한 패턴의 도시락은 전하람 작가. 9 백자 굽 잔은 오선주 작가. 10 분홍색과 보라색의 옷칠 굽 접시와 겨자색 오벌 옷칠 접시는 모두 오트오트. *원형 테이블의 페인트는 'DET 681' 던에드워드 노한점.

오른쪽 페이지 | 굴절의 움직임을 아크릴과 스테인리스스틸 소재로 표현한 'Purity series' 선반은 강지혜 작가. 2 검정색 머그컵은 조은샘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3 투명한 유리컵은 박선민 작가. 4 무광의 브라운 톤 아크릴 오브제는 윤라희 작가. 5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Jupiter' 모델은 광종범 작가. 6 3D 프린팅 후 옷칠로 포인트를 준 'Bubble Series' 그린 컬러 화병은 류종대×유남권 작가. 7 아크릴 소재에 노란색 그라데이션 포인트를 준 사이드테이블은 윤새롬 작가. 8 두 개의 아치가 결합된 'arch series' 스톨은 유정민 작가 by 워크샵퍼머스. 9 한강 교각의 형태를 조형적으로 재해석한 아치형 우드 스톨은 송기두 작가. 10 한국 전통 서까래와 미려 스테인리스스틸의 조합으로 충돌과 분절을 표현한 'Split' 벤치는 손신규 작가.



가만가만 안온한 새날이 이어지다

아무리 세상이 변화무쌍하게 변해도 아름다운 가치를 잃지 않고
오래된 깊은 멋을 간직하는 것은 멋지고도 감사한 일이다. 전통의 기품에 현재의 아름다움을 더해
미래의 가치로 이어주는 한옥 갤러리 '이음 더 플레이스'에서 고운 새해를 맞았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도움 주신 곳 이음 더 플레이스

새로운 것들이 찬양받는 요즘이지만 변화의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도시 서울 한가운데서 100년을 살아낸 한옥이 주는
안온한 위로는 귀한 선물과도 같다. 1908년에 지은 고택은 한옥의 아름다움은 남기고 현대의 쓰임새에 맞춰 정비해 우아한 한옥 갤러리

'이음 더 플레이스'로 거듭났다. 새로 짓는 것보다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는 한옥 리모델링에 정성을 들여 품격 있는
한옥에서의 특별한 시간을 원하는 이들에게 문화와 역사가 아우라진 공간을 선사한다.

특히 본채 끝에 누마루처럼 지은 공간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압권이다. 높은 빌딩들은 온데간데없고 인왕산과 경복궁이
그림처럼 펼쳐져 평온하고 고요하다. 많은 이들이 이곳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고 한옥의 가치와 생명을 이어가길 바라는
집주인의 바람처럼 '이음 더 플레이스' 덕분에 한옥은 우리의 일상으로 한 발 더 가까워진다.



새해 첫 선물

다시 동글게 솟은 해와 함께 2019년이 밝았다. 윤조에센스 New Year 컬렉션과 함께 새해를 맞아 귀한 분들에게 마음을 전해보자. 복된 기운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입은 윤조에센스 New Year 컬렉션은 새해 첫 선물로 더할 나위 없다. 한방 고서 속 3000가지 약용식물 중 피부에 보탬이 되는 57지 원료를 엄선해 18시간이라는 최적의 달임 시간을 찾아 완성한 자음단™으로 피부에 탄력과 영양, 생기를 부여하는 '첫 에센스'가 한 해의 시작을 아름답게 열어준다. 90ml 12만원

화려한 문양의 나전칠기 잔은 모두 몽휴 김걸의 작품으로 이음 더 플레이스 소장품.



우아하고 청초하게 피어나다

자연스럽고 화사한 메이크업을 위해 피부 바탕을 매끈하게 다져주는 설화수 메이크업밸런서가 새해와 함께 새로워졌다. 자음단™을 담아 피부에 생기를 부여하고, 촉촉하고 부드러운 발림으로 피부 결과 톤, 광채를 균형 있게 잡아준다. 파운데이션과 쿠션의 밀착력을 높여 갓 화장한 듯 맑고 투명한 피부가 유지된다. 자외선 차단 기능을 향상시킨 것은 물론 PC 화면과 스마트폰 액정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효과까지 더해 설화수의 세심한 정성을 느낄 수 있다. 피부 고민별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세 가지 컬러로 선보이며 라이트 핑크는 빛나는 광채를, 라이트 퍼플은 실크같이 은은한 화사함을, 라이트 그린은 노란 피부를 균일하게 보정하고 맑고 깨끗한 피부를 선사한다. 35ml 6만5000원

푸른색과 자주색 뚜껑의 함은 소미니스튜디오 by KCDF 갤러리숍, 핑크색 미니 옷칠 소반은 앤드비움 by 해빈서비스.

새해의 건강과 염원을 담다

2019년 기해년이 밝았다. 풍요롭고 복된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새해 음식을 특별하게 준비해보자. 임금의 수라에 올랐던 귀한 음식을 바탕으로 쉽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새해 밥상이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힘을 채워줄 보양식이기도 하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요리&스타일링 김보선(로쓰 스튜디오) 어시스턴트 전윤정



왼쪽 페이지 유기 접시는 다문
 옷칠 수저는 오트오트 옷칠 매트, 붉은색
 옷칠 접시는 허명욱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오른쪽 페이지 유기 컵과 검은색 옷칠 유기
 접시는 다문 카키색 옷칠 매트는 허명욱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노란색 옷칠 미니
 트레이는 오트오트.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궁중 떡집



재료

쇠고기 사태살 350g, 전복 3마리, 가래떡(18cm 길이) 2줄, 표고버섯 3개, 당근 1/2개, 달걀 1개, 은행 5알, 깻잎 10개, 물 1컵, 포도씨유 적당량 (유장) 참기름, 간장 1/2큰술 (양념장) 간장 5큰술, 설탕 2큰술, 참기름 2큰술, 다진 파 · 다진 마늘 1/2작은술씩, 후춧가루 약간

만드는 법

- 1 사태살은 한 입 크기로 큼직하게 찐다.
- 2 전복은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칼집을 넣는다.
- 3 가래떡은 6cm 길이로 썰고 가운데 십자 칼집을 넣어 참기름과 간장을 섞은 유장을 안쪽에 바른다.
- 4 표고버섯은 채 썰어 양념장 1큰술을 넣고 밑간을 한 다음 가래떡 사이에 채운다.
- 5 당근은 고기, 밤과 비슷한 크기로 잘라 돌려깎기 한다.
- 6 달걀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 지단을 부쳐 마름모꼴로 썰고, 은행은 살짝 볶아 껍질을 벗긴다.
- 7 냄비에 물, 양념장, 사태, 당근, 밤을 넣고 끓인다. 당근과 밤이 반 이상 익으면 가래떡과 전복을 넣고 양념을 끼얹어가며 졸인다.
- 8 재료들이 다 익으면 은행을 넣고 한소끔 끓인 뒤, 그릇에 담고 황백지단으로 장식한다.

복福으로 가득 채운
어만두 솔밥



재료

동태포 250g, 쇠고기 우둔살 60g, 오이 1/2개, 표고버섯 3개, 팽이버섯 한 줌, 다시마(사방 5cm 크기) 1개, 쌀 3컵, 물 4컵, 감자 전분 · 포도씨유 · 소금 약간씩 (불고기 양념) 간장 2큰술, 설탕 · 참기름 1/2큰술씩, 다진 마늘 1/3작은술, 후춧가루 약간

만드는 법

1 동태포는 해동해서 키친 타월로 살짝 눌러 수분을 제거하고 소금을 뿌려 밑간한다. 2 쇠고기는 가늘게 채 썰어 불고기 양념으로 밑간한 뒤 팬에 볶아 식힌다. 3 오이는 동태포와 비슷한 길이로 돌려깎아 채 썬 뒤 소금을 뿌려 10분간 절인 다음, 손으로 물기를 꼭 짜서 팬에 볶아 식힌다. 4 표고버섯은 채 썰고 팽이버섯은 비슷한 길이로 썬다. 5 동태포에 감자 전분을 얇게 뿌리고 볶은 쇠고기, 오이채, 팽이버섯을 올려 돌돌 말아 어만두를 만든다. 6 솥에 씻은 쌀과 표고버섯, 다시마를 넣고 밥을 짓는다. 뜬이 들 무렵 다시마를 제거하고 남은 오이채와 어만두를 올린 다음 뚜껑을 덮어 익힌다.

보름달을 빚은 디저트

원소빙

재료

(단호박 경단 반죽) 찹쌀가루 1컵, 단호박 가루 2큰술, 뜨거운 물 1/2컵, 소금 약간
(썩 경단 반죽) 찹쌀가루 1컵, 썩 가루 2큰술, 뜨거운 물 1/2컵, 소금 약간
(흰 경단 반죽) 찹쌀가루 1컵, 뜨거운 물 1/2컵, 소금 약간 (유자대추소) 대추 15알, 유자청 건더기 3큰술, 계핏가루 1작은술 (꿀물) 물 3컵, 꿀 1/2컵

만드는 법

1 볼에 세 가지 경단 반죽 재료를 넣고 고루 섞은 뒤 뜨거운 물을 붓고 부드러운 상태가 되도록 약반죽한다. 2 대추는 물에 30분 정도 담가 불린 뒤 돌려깎아 잘게 다지고, 유자청 건더기는 다져서 계핏가루와 고루 섞는다. 3 ①의 반죽을 적당량씩 떼어 ②에서 준비한 유자대추소를 넣고 동그랗게 빚는다. 4 끓는 물에 경단을 넣고 위로 떠오르면 건져 찬물에 식힌다. 5 볼에 경단을 담고 꿀물을 부어 낸다.



왼쪽 페이지 붉은색 옷칠 접시와 노란색 사각 옷칠 매트는 허명옥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오른쪽 페이지 붉은색 옷칠 접시, 민트색 미니 소반은 허명옥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자주색 옷칠 사각 트레이는 오토오토, 은 디저트스푼은 박성철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새해 음식 족편의 오마주

유자배채 족발

재료

족발 300g, 유자 1개, 배 1/3개, 대추 1알, 은행 5알, 포도씨유 적당량
(유자 잣소스) 잣 5큰술, 유자즙 3큰술, 식초 1큰술, 꿀 2큰술, 겨자 1작은술, 다진 마늘 1/3작은술, 소금 약간

만드는 법

1 유자는 껍질을 벗겨 노란 부분과 흰 부분을 저미듯이 떼어 분리한 뒤 얇게 채 썬다.
2 배는 유자 껍질채와 비슷한 길이, 두께로 채 썬다. 3 대추는 물에 30분 정도 불려 돌려깎은 뒤 돌돌 말아 썬다. 4 은행은 달군 팬에 살짝 볶아 껍질을 벗긴다. 5 믹서에 분량의 유자 잣소스 재료를 넣고 곱게 간다. 6 접시에 족발을 담고 유자채와 배채, 대추와 은행을 얹은 뒤 유자잣 소스를 함께 곁들인다.



왼쪽 페이지 세 가지 컬러의 옷칠 트레이, 옷칠 젓가락은 모두 오트오트

오른쪽 페이지 노란색 옷칠 미니 접시와 살구색 옷칠 매트 모두 오트오트, 유기

손가락은 다문 금장 파스타 접시는 이세용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왕의 겨울 보양식

타락죽



재료

쌀 1컵, 우유 3컵, 소금·설탕·잣 약간씩

만드는 법

1 냄비에 쌀과 물을 넣어 중약불에서 쌀알이 푹 퍼지도록 끓인 후 블렌더나 믹서에 곱게 간다.
2 ①에 우유를 조금씩 부으면서 문근히 끓인 뒤 설탕과 소금으로 간한다. 3 잣은 곱게 다져 준비한다.
4 그릇에 완성된 타락죽을 담고 잣가루 곱개를 얹어 낸다.

그림엽서 같은 설경 속으로

Zhangjiajie & Dolomite

장자제 & 돌로미티

아주 오래전 엽서를 받았다. 배낭여행으로 세계를 일주하던 친구에게서
산 넘고 물 건너 온 여정을 말해주듯 구깃구깃한 그림엽서 한 장.
거기에는 광활한 산맥을 뒤로한, 눈이 덮여 온통 하얀 어느 마을이 있었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셔터스톡





뜨거웠던 지난여름이 무색하게, 차가운 겨울의 한복판에 있다. 도시에서 겨울은 두툼한 코트와 머플러, 마스크로 무장하여 맞이하는 버거운 숙제와도 같다. 함박눈이라도 오면 반가움이나 낭만보다 교통체증이 걱정되는, 감성보다는 이성이 앞서는 현실. 여행은 건조한 감성을 잠시나마 자유롭게 놓아주는 시간이다.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설국으로 떠난 여행은 더욱 그렇다.

중국 장자제는 지상의 무릉도원이라 일컬어질 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중국 후난성 서북부에 있는 장자제는 본래 '대룡대봉'이라 불렸는데 1994년부터 장자제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1992년에 우림위안을 비롯한 주요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지구로 떠올랐다. "사람이 태어나 장자제에 가보지 않으면, 100세가 된다 한들 어찌 늙었다고 하겠는가?(人生不到張家界, 百歲豈能稱老翁)."라는 중국의 옛말만 보아도 장자제는 시대를 초월해 경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주 오랜 과거에 바다였던 곳이 솟아올라 깎아지른 절벽이 되고 아득히 깊은 협곡과 계곡을 만들었다. 기묘한 산봉우리가 만드는 산세는 그야말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풍경을 만들어낸다.

장자제는 무릉원구와 용정구로 나눌 수 있는데, 각 구역이 서로 변화무쌍한 얼굴로 다른 매력을 가졌다. 웅장하고 무서운가 하면 포근하고 다정하다. 특히 겨울에 만나는 장자제의 표정은 환상적이다. 사계절 푸른 침엽수가 대부분인 장자제의 산에서는 겨울에도 울창한 숲을 만난다. 눈으로 더욱

Taking a trip frees your emotions, which have become dry and fixed in the box, especially a trip to a snowy land where you can actually enjoy winter does.

Zhangjiajie, China, boasts of the most beautiful landscapes often known as the paradise on Earth. Located at the northwestern corner of Hunan Province, it was originally called 'Dayong,' but changed its name to Zhangjiajie in 1994. Its most popular areas, such as Wulingyuan, have been designated as UNESCO World Natural Heritage in 1992 to become one of China's leading tourist attractions. Since there is an old saying in China that says, "How could you call a person old just because he is 100 years old if he has not been to Zhangjiajie at least once in his life?" You can assume that Zhangjiajie has been admired over time. In the old times, a piece of land rose from under the sea to become a rough cliff with an endlessly deep valley.

Zhangjiajie can be divided into two districts: Wulingyua District and Longting District. Each district has completely different charms with unique attributes. They are magnificent and frightening, yet cozy and friendly. In particular, Zhangjiajie you see in the winter is truly fantastic. The mountains of Zhangjiajie, mostly filled with conifers that stay green all year, nurture luxurious forests throughout the winter. The story of mundane life, far beneath your feet, becomes nothing when you see Mt. Tianmen rising 1,518m above sea level toward the sky with even more luxuriously snow-covered forests.

'지상의 무릉도원'이라 불리는 장자제는 그 이름처럼 사계절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데 특히 겨울에는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설경이 드러난다. 울창한 침엽수림과 기묘모한 지형이 만드는 눈의 세계는 감동 그 자체다.



따스한 지중해 기후인 이탈리아에서 돌로미티는 광활한 설경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지역이다. 알프스 동쪽의 압도적인 경관을 품고 있어 스키 등 다양한 동계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이탈리아 로컬의 풍부한 문화유산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풍성해진 하얀 숲이 하늘에 닿을 것 같은 해발 1518미터의 천문산을 마주하면 속된 저 아래의 삶은 까마득하게 먼 이야기가 된다.

한편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뒤편 동쪽 끝자락에 솟아 있는 바위산 지역인 돌로미티(Dolomite)는 '신들의 지붕'이라 불린다. 이탈리아는 따뜻한 아열대 기후에 속하지만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지역에 따라 다양한 기후를 만날 수 있다. 한여름에도 산꼭대기에 눈이 쌓여 있는 돌로미티 지역은 북부 이탈리아 네 개 주에 광활하게 펼쳐져, 겨울에는 끝도 없는 설국으로 변신한다. 해발 3000미터 이상의 봉우리를 18개나 품고 있는 이곳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영화 <클리프 행어>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세월이 조각한 봉우리들과 에메랄드빛 빙하호 같은 압도적인 풍광은 여행자의 마음을 삼시간에 빼앗는다.

돌로미티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무대이기도 하다. 아직도 곳곳에 군대가 주둔했던 막사나 동굴의 흔적이 남아 있다. 영화 4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과 폭설을 견디며 싸워야 했던 병사들에게, 돌로미티는 지독하게 아름답고 공포스러운 괴물로 여겨지지 않았을까. 케이블카를 타고 환상적인 설경을 즐기다가 중간에 있는 산장에 내려 연결된 트레킹 코스를 선택하면 장엄한 알프스의 속살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다. S

Dolomite, the rocky mountain area rising high on the eastern end of the Alps in northern Italy, is known as the 'roof of the gods.' Italy is classified into the warm subtropical climate zone, but it is elongated from north to south, with regions boasting of different climates. Dolomite is covered with eternal snow even in the mid-summer, and turns into an endless range of snow in the winter as it stretches through four states in northern Italy. With 18 peaks rising above 3,000 m above sea level, this place has been registered as UNESCO World Natural Heritage in 2009. It is also famous for its appearance in the movie, <Cliffhanger>. The breathtaking view of the peaks carved by time and the emerald-colored glacial lake steal the hearts of all travelers.

Dolomite was also the battleground of a fierce battle between Austria and Italy during World War I. There are still barracks and caves where soldiers stayed. Dolomite must have been an extremely beautiful yet fearful monster for soldiers who had to fight against the extremely cold weather and heavy snow 40°C below zero. You can witness the real face of the magnificent Alps up close if you get off the cable car half way up the mountain, and choose the trekking course heading out from the mountain cabin.

스테인리스 조각들을 트러스 구조로

융접해 붙여 신성한 생명력을 지닌

소나무로 표현한 작품은 송운창 작가.

소나무에 깃든 귀하고 고결한 아름다움

매운 바람과 찬 눈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푸르름을 간직하는 소나무의 강인한 생명 에너지를 설화수의 진설 라인이 품었다. 적송의 응축된 젊음의 힘과 산양삼의 피부 재생 효과가 더해져 더 강력하고 진귀한 처방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진설의 전설은 그렇게 이어진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진 설 크림 Timetreasure Invigorating Cream

한국의 대표적인 소나무인 적송 속에 극미량만 존재하는 피부 생명 강화 안티에이징 성분인 DAA가 기존보다 2배 더 함유된 것은 물론, 청정 자연에서 재배된 산양삼에 응축된 강력한 생명 에너지가 피부의 힘을 길러주고, 세월의 흔적을 지워 한결같이 젊은 피부로 가꿔준다. 리프팅, 주름 개선 효과와 함께 부드럽고 밀착력 있게 발리는 크림이 건강한 윤기를 부여하며 적송의 푸르름을 담은 생동감 넘치는 향기는 편안한 안식까지 선사한다. 60ml 47만원

how to use 아침 저녁 진설아이크림 다음 단계에서 손등에 적당량을 덜어낸 후, 손가락 전체를 사용해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펴 바른다.



진 설 에센스 Timetreasure Invigorating Serum

피부 시간을 되돌려주는 고농축 적송 성분과 진귀한 산양삼 성분이 탄력과 생기, 주름을 다각도로 개선해 360도 탄력 케어와 함께 젊은 피부를 선사하는 한방 안티에이징 에센스. 적송과 산양삼 추출물은 느슨해진 피부 탄력을 끌어올려 주름을 개선하고, 항산화 에너지가 담긴 적송 FPPC 성분은 피부의 생기를 되찾아 기쁨 있게 가꿔주고 피부 생명 에너지를 섬세하고 매끄럽게 전한다. 50ml 38만원

how to use 아침, 저녁 진설수 사용 후 손바닥에 적정량을 덜어 피부 깊숙이 흡수될 수 있도록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착감 있게 눌러주는 느낌으로 펴 바른다.



진 설 마스크 Timetreasure Invigorating Sleeping Mask

자친 피부의 컨디션을 즉각적으로 회복시켜줄 진설마스크는 고농축 적송 성분을 바탕으로 밤새 활력을 부여해 다음 날 아침 맑고 탄탄한 피부로 가꿔준다. 울무, 행인, 상엽 등 한방 추출물을 담은 마스크는 풍부한 영양과 보습을 채우고 낮 동안 거칠어진 피부 결과 주름을 개선하는 토털 안티에이징 슬리핑 마스크다. 기분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자연의 향과 부드러운 텍스처는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관리해주는 동시에 밤 사이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80ml 20만원

how to use 저녁 시간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손등에 적당량을 덜어낸 후 전용 브러시를 사용해 눈가를 제외한 얼굴 전체에 꼼꼼하게 밀착하며 펴 바른다.



진 설 수 & 진 설 유 액 Timetreasure Invigorating Water & Emulsion

진설수는 고농축 적송 성분에 마고(표고버섯)와 건강(말린 생강) 성분을 더해 피부에 깊이 있는 수분감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스킨이다. 영양을 가득 품은 미세 수분 입자가 피부를 촉촉하게 감싸준다. 진설유액은 고농축 적송 성분은 물론 자에서 정성껏 얻어낸 해송자유 성분을 함유해 피부를 더욱 윤택하게 만들고 산뜻한 보습막과 함께 부드럽고 매끄러운 피부 결로 가꿔준다. 진설수 125ml 12만5000원, 진설유액 125ml 14만원

how to use 진설수는 아침, 저녁 윤조에센스 사용 후 손바닥에 적당량을 덜어 손가락 전체로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펴 바른 뒤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킨다.

진설유액은 아침, 저녁 진설에센스 사용 후 손바닥에 적당량을 덜어 손가락 전체로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펴 바른 뒤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킨다.



설화수 진설 명작 세트

Timetreasure Invigorating Classic Luxury Collection

적송과 산양삼의 귀한 성분을 담아 더 강력하고 새로워진 진설 라인과 김동귀 소목장의 색동목장이 만나 기품 넘치는 명작 세트를 선보인다. 오방색으로 염색집성한 나무를 한 켠씩 짜 넣어 신비롭고 품격 있는 문양이 새겨진 색동목장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9호 김동귀 소목장만의 목상감 기법이 적용되어 전통 가구의 단아함과 현대적인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있다. 진설수, 진설유액, 진설에센스, 진설크림, 진설마스크 등 진설 5종이 함께 구성된 설화수 진설 명작 세트는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2월에 만날 수 있다.



진설 라인 혹한의 추위와 미세먼지, 건조한 대기가 극에 달하는 요즘 피부는 안팎의 자극에 따른 노화가 연쇄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 연령대에 따라 증상이나 속도는 다르겠지만 노화를 부추기는 환경의 공격이 거세지는 만큼 강력한 피부 생명 에너지가 필요하다. 설화수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푸른 잎을 굳건히 피워내는 소나무, 그중에서도 귀하다귀한 적송에서 피부 노화를 이겨내는 강인한 생명 에너지를 찾아냈다. 이를 진설 라인에 담아 설화수의 품격을 대표하는 토털 안티에이징 라인으로서 한방 미학의 정수를 확인시킨 후, 다시금 진화한 진설 라인을 통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노화에 굴복하지 않는 진정한 안티에이징의 명품을 선보인다. 진설의 첫 번째 진화는 강력한 피부 생명 에너지를 품은 적송의 DAA 성분을 기존보다 2배 더 고농축으로 담아 한결같은 젊은 피부로 되돌려준다. 두 번째 진화는 적송의 껍질인 붉은 수피에서 노화를 억제하는 RPPC 성분을 찾아내 타고난 듯 젊은 피부로 가꿔준다. 산양삼에서 얻은 피부 활력 성분이 세포부터 젊어질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세 번째 진화도 진설 라인이 안티에이징의 전설을 이어가는 데 한몫한다. 이 밖에 진설 라인에 새롭게 합류한 진설마스크는 밤 사이 노화의 흔적을 지우고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려 간편하게 안티에이징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이며, 그윽하고 생동감 넘치는 적송의 향은 피부는 물론 마음까지 편안한 휴식을 선사한다. 성분과 향, 텍스처와 디자인 무엇 하나 소홀함 없이 감동적으로 진화한 진설은 소나무처럼 흔들림 없는 싱그럽고 탄탄한 피부의 기적을 안겨줄 것이다. S

Timetreasure Invigorating Line Your skin quickly undergoes a chain reaction of aging due to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stimuli from extremely cold weather, fine dust, and dry air. The symptoms and rate of aging would vary according to age, but you need powerful bursts of energy and vitality to defend the skin from environmental attacks that trigger aging. Sulwhasoo has found such energy in pine trees, especially the extremely rare and precious Korean Red Pine, that have green leaves even in the most barren environment. It has been captured in the Timetreasure Invigorating Line to reaffirm its identity as a total anti-aging line, representing Sulwhasoo's quality and the essence of Korean herbal medicine aesthetics. The Timetreasure Invigorating Line presents a true anti-aging solution unfazed by the chain reaction of aging. The first enhancement in the Timetreasure Invigorating Line is the Red Pine DAA which doubled to restore timelessly youthful skin with the powerful energy of vitality. Second, the discovery of RPPC from the red barks of Red Pine defies aging to achieve naturally younger-looking skin. A skin-revitalizing substance extracted from Wild Simulated Ginseng is the third key factor, supplying energy to cells to regain youthfulness. All of these formulas contribute to the Timetreasure Invigorating Line's anti-aging portfolio. The new addition to the line, Timetreasure Invigorating Sleeping Mask, is a functional, wrinkle-correcting product that eliminates the signs of aging, and enhances the skin's condition overnight. The rich and invigorating scent of Red Pine also comforts the skin and the mind. Timetreasure Invigorating Line has evolved in terms of its ingredients, scents, textures, and designs in impressive fashion, and it will realize the miracle of a firm, youthful skin that is as unwavering as a pine tree.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의 특별한 설마중 The Special Season's Greetings of Sulwhasoo Flagship Store

다시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 올해에는 또 어떤 기쁨과 귀한 경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희망과 설렘이 교차하는 새해 들머리에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가 마련한 특별한 정성을 만나보자.

에디터 민소연 사진 오희원

우리 조상은 음력 초하룻날, 즉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을 설날이라 하여 명절로 보냈다. '설날'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정확하지 않으나 한 해를 새롭게 세우면서 무탈하게 보내고자 하는 기원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설날 아침에는 새로 장만한 옷을 입으며 묵은 과거를 떨치고 새로운 시간을 시작함을 직접 몸으로 체감했다. 또한 가족이나 친지 등 가까운 사람들과 복주머니를 주고받으며 곧 다가올 미래를 축원했다. 이러한 풍습은 형태가 다소 바뀌긴 했으나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는 소중한 유산이다. 설날, 새로운 해의 들머리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가득하다.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도 고객을 위해 특별한 새해 선물을 준비했다. 먼저 윤조에센스 New Year 컬렉션은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한정 아이템이다. 특히 이번 윤조에센스 New Year 컬렉션은 용기 뚜껑을 행운과 복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강조하여 길한 의미를 더했다. 전통 오방색 중 하나인 붉은색은 예로부터 생동감 넘치는 양기와 생명을 낳고 지키는 힘을 가진다고 여겨졌다. 또 민속신앙에서는 나쁜 기운을 퇴치하고 상서로움을 불러들이는 상징으로 널리 쓰였다.

이처럼 행운과 복의 색깔이 담긴 윤조에센스 New Year 컬렉션은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기분 좋게 아름다운 피부를 가꿀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자 마스크트가 될 것이다.

윤조에센스 New Year 컬렉션을 1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고운 복주머니 보자기 포장 서비스가 서비스되며 소중한 이를 위한 새해 선물로도 더할 나위 없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보자기 포장은 세 가지 컬러의 복주머니 모티브로 새해의 희망찬 이미지를 재치 있게 담았다. S

Korean ancestors celebrated January 1st of the Lunar Calendar as New Year's Day. It is called 'Seolal'. On the morning of New Year's Day, they dressed up in new outfits to say goodbye to the past, and experienced the beginning of the new day. Also, they exchanged pockets of good luck with their families and relatives to wish for good luck in the future. This custom has changed a bit in form, but it is a precious heritage that is still handed down today. The beginning of a new year is always filled with new hope and anticipation.

Sulwhasoo Flagship Store has prepared a special New Year's gift for its customers. One of which is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New Year Collection, exclusively available at the Flagship Store for a limited time.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New Year Collection has a red cap to symbolize good luck. Red is one of the traditional colors with the energy of Yang, full of vitality, and power to create and defend life. It has been a symbol against bad spirits and a form of good luck in folk religions.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New Year Collection with the color of good luck will be the best gift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skin for the New Year. Anyone who purchases 100,000 KRW worth or more of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New Year Collection will also receive a complimentary gift wrapping service with a beautiful wrapping cloth, making it the best New Year's gift. The new gift-wrapping cloth is inspired by the three-colored pockets of good luck to convey the hopeful image of the New Year.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한 격려의 선물로, 윤조에센스 New Year 컬렉션을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
길한 상징의 케이스와 복주머니 장식 보자기 포장까지,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행운이다.

아름다운 열정으로 뜨거운 설화수의 겨울

한방 프리미엄 안티에이징의 정수

설화수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로 완성된 진설 라인이 2019년을 맞아 새로워진다. 피부 생명 강화 안티에이징 성분인 적송의 DAA를 2배 더 함유하고, 적송의 껍질인 붉은 수피에서 얻은 RPPC 성분과 청정 자연에서 재배된 10년근 산양삼의 추출물을 담아 피부 활력 에너지를 공급해 노화에 굴복하지 않는 한방 프리미엄 안티에이징의 정수로 재탄생한다. 탄탄한 리프팅 효과로 탄력과 주름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한결같이 젊은 피부로 가꿔준다. 진설 라인 중에서도 진설크림, 진설에센스, 진설수, 진설유액이 업그레이드되고, 고농축 적송 성분으로 밤 동안 활력을 부여하는 진설마스크가 새롭게 추가된다. 진설크림 60ml 47만원, 진설에센스 50ml 38만원, 진설마스크 80ml 20만원, 진설수 125ml 12만5000원, 진설유액 125ml 14만원



더 화사하고 투명한 피부의 꿈을 이루다

설화수의 대표적인 인기 제품인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에 더 강력한 미백 효과가 더해져 '자정 브라이트닝 쿠션'으로 새로워진다. 진주도 콤플렉스의 다각도 빛반사 효과로 피부를 환하게 밝히고, 어느 위치에서 보아도 새하얀 광채로 빛난다. 즉각적인 톤업 효과로 노란 기를 잡고 화사한 순백의 피부를 선사한다. 자정미백 라인의 공통 성분인 백삼과 백합꽃 추출물은 피부를 맑게 정화해 도자기처럼 깨끗한 피부로 가꿔준다. 끈적임 없이 공기처럼 가볍게 밀착되어 본연의 피부인 듯 피부 톤이 균일하고 자연스럽다. 14g×2.6만8000원대



피부 결, 피부 톤의 균형을 찾다

설화수는 메이크업 전에 생기 있고 화사한 피부 바탕을 준비해주는 '메이크업밸런서'를 업그레이드 했다. 설화수의 시그니처 원료인 자음단™을 함유해 피부에서 생기와 윤기가 우러나온다. 로즈골드 펄 콤플렉스가 피부에 광채를 살려주고, 세라미드 코팅 커버 파우더 기술이 적용되어 균일한 톤과 화사한 피부를 선사한다. 자외선 차단은 물론 일상생활의 블루라이트를 차단해 피부를 건강하게 보호해 준다. 피부 고민별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라이트 핑크, 라이트 퍼플, 라이트 그린 3가지 컬러로 선보인다. 35ml 6만5000원



복을 기원하는 소중한 마음

'첫 단계 에센스로 독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설화수 시그니처 제품인 '윤조에센스'가 2019년 기해년을 맞아 붉은색을 입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다. '윤조에센스 New Year 컬렉션'은 예로부터 복과 행운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강조해 길한 의미를 담았으며 상서롭고 생기 넘치는 기운을 전한다. 윤조에센스의 핵심 원료 자음단™이 메마른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가꿔주고 피부에 부족한 기운을 채워줘 영양과 생기, 탄력과 투명도, 자생력 등 5가지 총체적인 피부의 균형을 바로잡아 준다. 90ml 12만원



어떤 각도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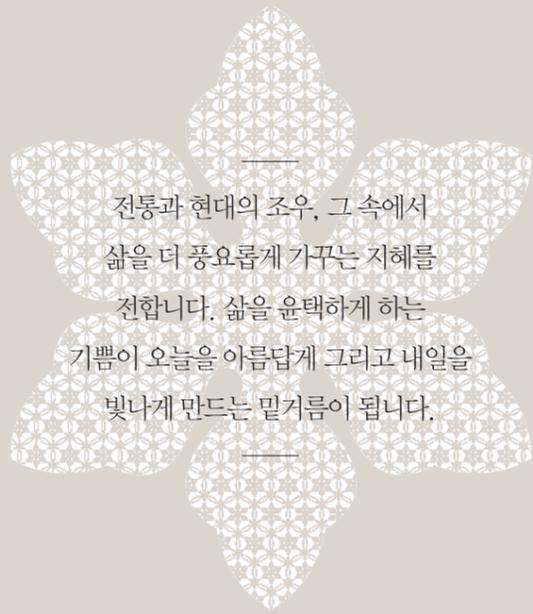
주름이 생긴 것도 아닌데, 왜 나이 들어 보일까요?

주름, 기미, 잡티는 쉽게 가릴 수 있지만, 힘 없이 처진 얼굴탄력은 숨길 수 없죠

뿌리부터 잎까지 인삼에너지를 담아낸 캡슐에센스가 약해진 탄력 지지 구조를 강화해주는 자음생에센스-

이제, 시간의 흐름과 외부 자극에도 흔들림 없이 탄력각을 세우세요





한글



모란은 그 화려한 자태로 예부터 꽃 중의 왕으로 불리며 부귀와 영광, 행운 등을 상징했다. 설날에 선물로 서로 주고받았던 복주머니 위에 모란을 섬세하게 새겨 넣는 것은, 그 자체로 기도이자 축원이다. 겸재 정선의 그림이 모티브가 된 차 도구 세트는 모두 전하람 작가.

쓰임새와 아름다움, 상징의 합일

민화 티매트 만들기

민화만큼 우리 민족의 정서와 문화를 잘 드러내는 그림이 또 있을까?
민중 속에서 태어나 소박하면서도 알뜰하게 생활을 빛내는 구실까지 했던 민화.
그 안에는 여러 도상학적 상징과 간절한 기원이 깃들어 있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박혜숙 도움 주신 곳 신미경 민화연구소

일반적으로 민화는 '민속화'를 뜻한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일본의 미술평론가 야나기 무네요시다. 그는 1929년 교토에서 열린 민예품 전람회에서 '민속적 회화'를 가리켜 민화라고 칭했고, 1937년에는 한 공예 월간지에 "민중 속에서 태어나고 민중에 의해 그려지며 민중에 의해 유통되는 그림이 민화"라고 말했다. 그는 민화를 창의성보다는 실용성이 강조되고, 몇 장이든 되풀이해서 그리는 그림이며, 생활공간을 장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민속적인 아름다움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그림이라 규정한다. 이러한 민화의 정의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통용되어, 아마추어 화가나 일반인이 취미에 맞게 그린 원초적이고 순박한 풍경이나 인물, 초상, 풍속, 장식 등의 그림을 가리킨다.

한국의 민화

그런데 한국의 민화는 앞서 말한 민화의 개념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지만 약간 다른 의미도 가진다. 우리의 겨레 그림으로서 역사성이 강조되면서 전통적인 미의식과 신앙, 정서가 담긴 다양한 옛 그림을 뜻한다. 민화는 생활을 보다 아름답고 운택하게 가꾸고자 하는 민중의

필요와 요구에 그들의 보편적 감정과 욕망이 깃들어 창조된다. 즉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염원과 신앙을 장식적인 도상으로 만들어 주변 가까이 두고자 했던 것이다.

민화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간이 가진 그리고자 하는 본능을 생각해보면 마음 내키는 대로 가식 없이 그린 민화야말로 역사의 시작점부터 함께하지 않았을까?

신석기시대나 청동기시대 암벽화나 삼국시대 고분벽화, 고려와 조선 시대의 미술 공예품에 이르기까지 민화에서 자주 보이는 무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중에서도 암벽화에서 발견한 동물 그림, 고구려 벽화의 사신도, 신선도, 해·구름·바위·산·영지 등의 장생도, 수렵도, 백제 산수문전의 산수도 등은 한국 민화의 연원을 밝힐 수 있는 작품이라 해석되고 있다.

민화는 도화서 화원과 화원의 제자와 같은 실력자부터 비록 화원이 되지 못했으나 그림에 재주가 있어 그림으로 먹고 살았던 화공, 그리고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그들이 그린 민화는 민초, 대중이 가진 감성이나 당대의 풍속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무속이나 유·불·도교 등의 종교적 제례와 공공 기관과



민화 티매트 만들기

준비물 티매트, 민화, 한지, 먹, 붓, 분채와 아교(또는 동양화용 물감), 접시, 나이프 등

만드는 방법

- 1 티매트에 그릴 민화 원본을 보고 한지에 따라 먹으로 두껍게 선을 그린다. 민화 위에 종이를 겹쳐 선을 그대로 따도 좋다.
- 2 원본의 선을 따 종이 위에 다시 티매트를 올려놓고, 연필로 그림을 옮긴다.
- 3 접시에 분채와 아교를 섞어 채색할 색깔을 만든다.
- 4 티매트 위에 그린 밑그림에 색을 칠한다. 민화와 같은 색으로 하거나 변화를 주어 자신만의 개성을 넣는다.
- 5 여러 번 덧칠해 색을 선명하게 하여 마무리한다.

신미경 민화연구소 2017년 전국민화공모전 대상을 수상하고 전통 민화의 구현은 물론 새로운 감각의 모던 민화를 선보이고 있는 신미경 작가의 공방이다. 다양한 민화를 그려보는 클래스가 진행되며 개인지도 수업도 받을 수 있다. 문의 bmwife1968@naver.com



개인에게 사용된 그림은 생활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백성을 교화하며, 그들의 풍속을 담아냈다. 즉 나쁜 귀신을 쫓고 경사스러운 일을 맞길 바라는 기원을 품은 그림, 집 안팎을 단장하기 위한 그림, 병풍이나 족자, 벽화처럼 일상과 연결되어 실용적으로 필요했던 그림이 주로 민화를 구성한다.

읽어 내는 그림, 민화

민화가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림 이상의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점이다. 대중이 자신들만의 예술 감각으로 창조한 상징의 세계가 펼쳐진다.

예를 들어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화조도'는 꽃과 새를 중심으로 동물과 바위, 물이 함께 어우러지게 표현한다. 이는 우리의 자연을 함축시킨 꿈의 세계, 인간의 상상 세계를 그려낸 것인데 화려한 장식성과 다양한 상징성으로 특히 많은 사랑을 받았다. 화조도에서 자주 볼 수 있

는 모란꽃은 부귀영화를 나타내는데, 왕의 권위를 은유하기도 해서 궁중 그림이나 문양의 소재로 많이 쓰였다. 연꽃은 다산과 청결, 또는 과거에 연달아 급제하는 경사를 의미하며 패랭이꽃은 장수, 맨드라미와 닭은 벼슬과 명성을 뜻한다. 개는 집을 지켜주고 재난을 예방하며 집안에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기원을, 사슴은 장수와 우애를 나타내는 등 각 동물이나 식물에는 의미와 상징체계가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화훼도, 산수화, 문자도, 책거리, 장생도, 설화화, 벽사도 등 다양한 주제의 민화에서 셀 수 없는 상징을 발견하고 해석할 수 있다. 단순하게 눈으로 즐기는 것을 넘어서, 각 상징이나 공간에 맞도록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선인들의 지혜와 꼼꼼함이 엿보인다.

이번 배움의 기쁨에서는 신년을 맞이해서 복을 불러들이는 모란과 해피트리 문양의 복주머니를 티매트 위에 민화로 그려보았다. 길한 것만 모아 아름답게 주변을 꾸몄던 옛 정성이 지금으로 이어져, 행운이 가득한 새해를 기대해보는 시간이었다. S

고귀함 드러내는 사뿐한 걸음걸음 The Light Steps of Grace

섬세한 주름이 풍성한 치맛단 아래로 날렵한 곡선의 코를 가진, 색 고운 꽃신이 살짝살짝 보인다.
비단 당혜와 걸음 맵시만으로도 고귀한 신분이 짐작된다. 흙 문을 새 없는 그녀의 신은, 좀 더 자유로운 바깥을 꿈꾸었을까?

에디터 민소연 도움 주신 곳 국립고궁박물관, 플라타파트먼트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신발은 기원전 7세기 고조선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에서 발견한, 청동 단추가 달린 가죽신이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평지가 적으며, 날씨의 변화가 무쌍하므로 이에 맞는 다양한 의복과 신발이 발달했다.

특히 신발의 종류는 성별과 신분에 따라 달라져, 계급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했다. 중국 문헌인 <위지동이전>의 “마한은 가죽신을 신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기원전부터 지배층은 가죽신을 착용했다고 짐작할 수 있고, 신라시대 때는 이미 고급 비단으로 수를 놓은 신발이 일반화되었다. 남성은 화를 신게 하고 여성은 헤만 신도록 하는 등 신분과 성별에 따른 규제도 이때부터 생겨났다.

전통 신발을 나누는 기준은 다양하다. 우선 형태로는 목 부분이 높은 화靴와 목이 없는 헤鞋로 나뉜다. 화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목화木靴로, 주로 남성이 착용하던 신발이다. 대개 검은색 우단이나 명주로 만들어 문무백관들이 관복에 맞추어 신었다. 한편 헤는 화를 제외한 신발을 통칭하며 대표적으로 ‘태사혜’와 ‘당혜’가 있다. 이는 보통 앞코와 뒤축을 장식한 무늬에 따라 구분해 부르는데 태사혜는 대칭으로 태사문을, 당혜는 당초문을 넣었다.

조선시대 양갓집 부녀자들이 신던 당혜는 몸체를 가죽이나 비단으로 만들고 그 위에 비단을 씌웠다. 신발 높이가 낮고 코가 뾰족하게 들려 있으며, 부드러운 내피로 바닥을 푹신하게 했다. 밝고 고운 배색의 비단을 두껍게 덧붙이는 배악비 방식으로 우아한 아름다움을 더한다. 영친왕비 당혜 역시 진홍색과 연두색 비단 배색으로 화려하게 꾸몄다.

한편 플라타파트먼트는 우리 전통 신에서 온 형태의 특성이 현대적 감성을 입고 태어난 독특한 슈즈 디자인을 선보인다. 버선코가 가진 독보적인 한국의 매력은 지금도 유효하다. S

Since Korea is mountainous with limited flatlands and rather temperamental weather conditions, traditional people developed many kinds of wardrobes and shoes. In particular, the types of shoes varied by gender and social status, and were considered as symbols of social class. As recorded in the Chinese literature <Wijidongijeon>, “Mahan wore leather shoes,” you can assume that the ruling class began wearing leather shoes before Christ. Shoes embroidered with premium silk were already popular by the time of the Silla Empire, and restrictions were applied according to social status and gender wherein men were only allowed to wear Hwa, and women could wear Hye only.

Traditional shoes are classified in different ways. By shape, they are classified into Hwa with long necks, and Hye with no necks. The most popular type of Hwa was Mokhwa, which was mostly worn by men. Hye, on the other hand, refers to all shoes, excluding Hwa, and the most popular types are ‘Taesahye’ and ‘Danghye.’ They are identified by the decorative patterns on the front and back; Taesahye has the symmetrical pattern of Taesa, while Danghye has the pattern of vines. The type of Danghye worn by the noble women in the Joseon Dynasty was made of leather or silk, and covered with silk. The heels were low, and the tips were pointy and rolled up. The interior lining was smooth with cushion. The shoes were covered with a thick layer of finely bright silk to achieve graceful beauty.

Flat Apartments presents unique shoe designs inspired by traditional shoes, and reproduced with modern sentiments.



영친왕비 당혜, 조선시대



F18A-RL IN RED, 플라타파트먼트



오방색을 테마로 한 명주 조각보 이불. 황, 청, 백, 적, 흑의 색에서 톤을 하나 낮추어 작업했다. 기존 오방색 배색이 강렬하고 화려하다면 톤을 낮춘 이 작품은 한층 차분한 현대적 감각이 돋보인다. 전통을 테마로 한 공예가 얼마든지 지금에 응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색색을 이어 꾸리는 생생한 삶

빈 컬렉션 강금성 대표

색색의 자투리 천을 모아 서로를 이어 붙인다. 이웃하는 색깔이 때론 비슷하고 때론 확연히 다르다. 그 숭한 조각이 모여 미처 생각지 못한 하나의 큰 무늬가, 새로운 조화가 탄생한다. 우리 조각보가 아름다운 이유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오희원

빈 컬렉션은 우리 전통 공예를 현대적 미감과 라이프스타일에 알맞게 변화시킨 감각적인 제품들로 사랑받고 있다. 이곳의 물건은 낮익으면서도 흔히 볼 수는 없는 가치를 지녔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우리네 보자기에서 친숙하게 볼 수 있었던 알록달록한 색감이, 따스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하는 이불 위에 거침없이 펼쳐진다. 그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 수많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 붙여 조화를 이루는 수고와 정성이, 물건을 더 귀하고 특별하게 만든다. 대량생산으로 모두가 오차 없이 똑같은 물건의 바다 속에서 모양이나 무늬, 색이 조금씩 달라 같은 제품이 하나도 없는 빈 컬렉션의 개성이 유난히 반짝인다.

안동에서 태어난 빈 컬렉션 강금성 대표는 어린 시절을 친가와 외가의 할머니들과 한집에서 보냈다. 아버지가 온 집을 책으로 가득 채우고 형제들이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게 당연한 가풍 안에서, 그녀는 외할머니가 곱게 지은 한복이며 손바느질의 섬세한 움직임이 더 흥미로웠다. 고운 색의 천으로 조물조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신기하고도 어여뻔다. 어른들에게 물려받은 손재주와 섬세한 미적 감각은, 소녀였고 평범한 주부였던 삶을 여기까지 이끈다.

“취미로 하던 바느질이 일이 되었어요. 2001년 삼청동에 작은 공방을 열어 정신없이 작업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졌네요. 그저 바느질이 좋고 재미있어서 혼자 시작한 일이 이제 여러 직원을 둔 어엿한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책임이 무겁고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지만, 함께하는 식구들이 있어 든든해요. 저 혼자였다면 이룰 수 없는 것들이지요.” 강금성 대표에게 애장품을 물었을 때, 그는 물건보다는 먼저 사람을 말했다. 빈 컬렉션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이 소중하고 ‘애정’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작품이어서가 아니라 직원들의 열정과 정성이 담긴 것이

기 때문이라고. 그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고.

“바느질이라는 것, 기술이라는 것, 감각이라는 것… 모두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나 연약해서 바깥의 흉한 것들로부터 보호하고 잘 보살펴야 하죠. 그러다가 백일이 되고 돌잔치를 하고, 걷다가 뛰고, 말을 유창하게 하고,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기적 같은 변화지요. 시간이 쌓여 꾸준하게 만들어지는 게, 결국 2프로 남다른 무언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시간이 쌓여 이루는 힘은 그 무엇보다 강하다. 강금성 대표의 말은 한국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에도 이어진다. 우리가 친밀하게 여기는 것, 늘 보고 그 안에서 생활해온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미의식이 바로 한국적인 아름다움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편하고 포근한 그것. “바느질을 하면 배색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비슷한 색끼리 견주면 무난하게 어울리지만 재미가 없어요. 그럴 때는 문득 정반대의 색을 ‘톡’하고 견주어봅니다. 극과 극을 배치해보는 거죠. 그러면 희한하게 각각의 색에 더 힘이 생기고 전체적으로도 조화를 이룹니다. 저는 그것 역시 한국적인 미감,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해요.”

말간 떡국 위에 오방색의 고명을 얹어 장식하며, 색동옷을 입고 바람개비 배개를 베고 잤던 우리의 감성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없이 우아하고 완벽히 정돈된 것은 아니나, 강렬한 대비에 내포한 갈갈한 조화. 거기엔 정말 알 수 없는 끌림이 있다. S





〈김홍도 Alive: Sight, Insight〉는 풍속화가로만 잘 알고 있었던 김홍도의 숨겨진 면모들을 생생하게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전시다. 그가 그린 금강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드론 영상처럼 거대한 스크린에 흐르고 저잣거리 민초의 생활엔 현대의 유머가 가미된다.

조선 최고의 해학, 오늘의 감각을 만나다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 김홍도는 여러 문화 콘텐츠로 다시 태어나, 이제 너무나 친숙한 캐릭터가 되었다. 그가 그린 수많은 풍속화 역시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법하다. 그런데 〈김홍도 Alive〉 전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던 김홍도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된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박혜숙, 〈김홍도 Alive〉

전쟁기념관에서 선보이고 있는 〈김홍도 Alive: Sight, Insight〉는 조선시대 천재 화가로 잘 알려진 단원 김홍도(1745~1806)의 작품과 생애를 복합 미디어로 새롭게 풀어낸다. 특히 이번 전시는 '행려풍속도' 8폭 병풍을 비롯해 '풍속도첩', '금강사군첩', 정조의 '화성행차도' 등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대작들을 미디어 아트로 만나볼 수 있다. 중인 출신이지만 뛰어난 그림 실력으로 가장 높은 권력의 세상으로 들어섰던 김홍도는 계층을 넘나들며 해학과 흥을 더한 당대의 삶을 그려낸 풍속화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의 영역은 보다 넓었고 더욱 다양한 분야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예술가이기도 했다. 그가 활동했던 조선 후기는 영조(英祖, 재위 1725~1776)와 정조(正祖, 재위 1777~1800)의 치세 아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바탕으로 커다란 문화 발전을 이룩한 시기이다. 18세기에 활약했던 대표 화가로서 겸재 정선(鄭敼, 1676~1759)이 있지만, 그가 주로 진경산수화에 치중하여 일가를 이룬 데 비해, 김홍도는 당시 회화의 삼대 조류인 진경산수화, 풍속화와 남종화는 물론이고 도석 인물화, 고사 인물

화, 영모, 화조, 사군자, 초상화, 기록화 등 각 부문을 비롯해 심지어는 불화, 판화에 이르는 거의 모든 장르에 걸쳐 두루 명작을 남기고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다. 정조의 절대적인 후원 속에서 한국적 특성이 두드러진 '김홍도 화풍'을 확립하고, 자신의 화풍을 한 시대 양식으로까지 확산시키면서 동시대와 후대의 화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한국 회화사에서 김홍도가 갖는 중요성은 고도의 예술성, 작가적 독창성과 한국적 미감의 발현에 있다. 또한 문화사적으로는 우리나라 산천의 아름다움을 건설한 사실성의 바탕 위에서 독특한 시정을 담아 재현한 진경산수화, 우리 조상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과장 없이 그려내면서도 그 멋과 흥, 해악을 이끌어낸 풍속화 등에 나타난 소재의 근대적 성격에 큰 의의가 있다. 더욱이 김홍도는 시와 글, 그림과 음악 등 다방면에 걸친 교양을 한몸에 갖춘 작가였으며, 이러한 자질들은 그 작품의 전반적 풍격을 드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전시는 인트로와 함께 총 여섯 개의 섹션인 '화원의 초상', '박달나무 언덕', '궁궐', '금강산', '저잣거리', '단원의 방'으로 구성된다.



김홍도 Alive
SIGHT, INSIGHT

일시 2019년 2월 24일까지
장소 용산전쟁기념관 1층 기획전시실 1, 2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9 전쟁기념관)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입장 마감 5시)
문화의 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오전 10시~오후 8시)

다섯 개의 색선으로 구성된 전시 공간은 김홍도의 시선 변화를 따라간다. 박달나무 언덕을 올라다보고, 궁궐을 살펴보고, 금강산을 굽어보고, 저자거리를 꿰어보다 보면, 어느새 단원의 방에 다다른다. 이쪽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예술가의 시선에 눈을 맞춘다.

전시장에서 들어서서 처음 마주하는 것은 김홍도의 자화상이다. 곳곳한 자세와 그 시선에 맑은 선비의 기품과 예술가의 천재성이 함께 느껴진다. 여백이 돋보이는 소탈한 방 역시 새롭게 다가온다. '박달나무 언덕: 올라다보다'는 문인 사대부의 시와 음악이 흐르는 풍류의 공간이다. 여기에서는 '단원아집과 '강세황의 초상', '단원도', '단원풍경'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박달나무 언덕'은 김홍도의 호인 '단원'을 뜻하는 보통명사이자 1750년경 서해 언덕에 펼쳐진 안산의 옛 지명이다. 김홍도는 자신의 집을 '단원'이라 이름 짓고 아집(사대부들의 예술 모임)을 베풀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착안하여, 문인들의 흥취가 배어 있으며 시와 음악이 흐르는 박달나무 언덕에 대한 김홍도의 동경을 조형물과 사운드, 영상의 복합 미디어로 새롭게 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두 번째 색선인 '궁궐: 살펴보다'에서는 궁중 화원으로 활동하면서 남긴 김홍도의 작품 '규장각도와 정조의 화성 행차 기록을 진두지휘한 '원행음모정리의궐 반차도', '화성능행 8폭병' 등을 미디어로 체험한다. 정조는 과감한 개혁 정치를 펼치면서 규장각에 김홍도가 속했던 '자비대령화원'을 두어 자신의 정치 철학을 기록하고 시각화했다. 임금의 통치 철학이 담긴 그림을 그렸던 만큼 여기에서는 위정자의 위치에서

백성과 나라를 살피는 지엄하면서도 자애로운 시선이 느껴진다. 정조와 김홍도의 실시간 메신저 대화라는 허구의 설정으로 구성된 영상도 눈길을 끈다. 김홍도의 시선, 즉 김홍도가 보낸 실시간 인증샷을 통해 행차를 즐기는 백성의 생생한 모습과 표정을 정조가 살핀다는 내용이 현대의 유머러스한 감각과 어우러져 웃음을 주었다. 이어지는 '금강산: 굽어보다'에서는 금강의 신비로운 비경을 담은 '금강산화첩'을 재해석한 미디어 아트를 만날 수 있다. 김홍도의 '금강산화첩'은 한국적인 산수화풍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세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 발전의 정점으로 손꼽힌다. 겸재 정선이 우리나라 산천의 실경을 그려내는 진경산수화를 창안했다면, 김홍도는 정선에 이어 사실적 묘사를 통해 진경산수화법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된 웅장한 '금강산화첩' 60폭 영상 앞에 서자 날아오르는 매의 시선으로 굽이굽이 험준하게 펼쳐진 금강산 위를 비행하는 기분이 든다. 금강산 절경 속에서 김홍도의 그림에 숨어 있던 신선, 도인, 유람객, 나무꾼과 사냥꾼 등 다양한 인간 군상, 동물들과 반갑게 만났다. 네 번째 색선인 '저자거리: 꿰어보다'는 인간적인 속됨이 가득한 세상

곳곳의 풍경을 성찰하며 김홍도 고유의 풍속도 스타일을 확립하는 과정을 따라간다. 눈앞에 있는 현실의 대상을 직시하여 인간의 본질과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조선 후기 생활사를 가까이, 찬찬히 들여보는 과정을 통해 파격적인 구도와 내용을 담아 서민적 취향의 풍속도에 완성도를 높였다. 프랑스 기메 박물관이 소장한 '행려풍속도 8폭병'과 '풍속화첩' 25점 등이 위트 있는 재해석을 거친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펼쳐지기도 한다. 마지막 색선인 '단원의 방: 응시하다'는 예술의 경지에 이르러 안으로 시선을 돌린 단원의 내면을 표현한 '포의풍류', '추성부도' 등의 작품을 디지털 미디어에 담아내어 현대적인 감각으로 흥미롭고 생동감 있게 구현한다. 중인이라는 신분의 한계를 넘어 관직, 명예, 부는 물론 사회적 위치와 화가로서의 명성을 모두 다 누리고 난 뒤 '내면의 나'를 비로소 충실하게 들여다보는, 인간 '김홍도'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화가의 그림을 본다는 것은, 그가 속한 시간과 세계를 공유하는 것이다. 거대한 왕의 행렬을, 금강산의 신비로운 봉우리를, 서당에서 혼나는 아이의 눈물을 보고 있으니 조선시대 누군가의 눈을 잠시 빌린 것만 같다. 그 눈은 예리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애정을 품은, 꼭 닮고 싶은 시선이었다. S

온기와 감성이 더해진 다정한 겨울

매서운 추위를 견디기 위해 패딩과 부츠를 마련하듯 가족이 머무는 공간에도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더해주자. 패브릭과 조명, 캔들 등을 활용해 피부로 온기를 느끼고 시각으로 온도를 높여주는 보온 인테리어는 마음까지 따스한 보금자리로 만들어준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장세희(뷰로 드 플로디아)



전통 나전칠기에서 영감을 받아 달밤의 풍경을 현대적 미감으로 디자인한 무드등. 루트57.



밀린 연꽃, 작약 등의 한방 원료와 나무의 기품 있고 따뜻한 향을 담아 공간을 고급스럽게 채워주는 한방 포푸리. 설화수.



조각보 기법을 활용한 화려한 색동 패턴의 8각형 쿠션 빈 컬렉션.

혹한의 날씨를 이기는 지혜는 집 안에서 필요하다. 난방의 온기를 가둬 보온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패브릭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다. 니트, 퍼, 벨벳, 모직 등의 소재로 딱딱하고 차가운 의자에 커버링을 하거나 쿠션이나 방석을 두면 온기가 더해진다. 전체 커버링이 버거운 가죽 소파도 블랭킷이나 담요로 부분만 덮어도 한결 따뜻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소재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색감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겨울 냉기를 녹여준다. 오렌지, 레드, 옐로 계열의 색은 공간을 풍성하게 채우고, 브라운 컬러는 대지를 상징하는 색으로 안정감을 주면서 시각 온도를 높인다. 따뜻한 조명과 향초도 평범한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고 온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천장의 전체 조명으로 기본적인 밝기를 유지하고, 노란 빛의 테이블 조명이나 플로어 스탠드를 곳곳에 배치하면 안정감을 주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더불어 가족간의 다정한 온기가 이 춥고 긴 겨울을 견뎌 낼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방법임을 명심하자. S



한지와 한복 천을 섞어 만든 은은하고 따뜻한 느낌의 모빌. 향수나 아로마 오일을 뿌리면 방향 효과가 있다. 오마치.



눈 속에서 꽃을 피우는 매화의 생명력과 고귀한 향을 은은하게 담아 공간에 생기를 더해주는 천연 소이왁스 향초. 설화수.



모던한 그래픽과 레트로 스타일의 컬러가 조화로운 니트 쿠션. 도통하고 부드러운 촉감이 온기를 전한다. 키티버니포니.



전통 목기구가 발달한 전남 남원의 풍경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후 컬러 옷칠로 멋스럽게 마무리한 촛대. 유남권 작가.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의미가 있는 잣 열매 모양을 손바느질로 만들어 엮은 공단 방식. 빈 컬렉션.



따뜻한 기운을 담은 브라운과 머스터드 옐로 컬러를 두 개의 원에 담아 시각적인 온기는 물론 바닥 난방의 온기도 올려준다. 키티버니포니.



조선시대 민화인 책가도에 나오는 꽃 문양을 현대적으로 패턴화한 쿠션. 훗컬렉션.



통영의 전통 누비를 제작하는 정숙희 장인과 협업해 현대적인 기하학 디자인을 적용한 러그. BKID.



네이비 컬러의 반사판이 캔들라이트의 작은 빛을 분위기 있게 연출해주는 캔들 홀더. 브레이크타임킷.

꽃과 색의 찬미

검은색 외투 일색인 겨울 거리에서 마음까지 춥고 건조하게 느껴진다. 매서운 바람에 움츠러든 몸과 마음에 고운 꽃 액세서리나 툭툭 튀는 컬러 포인트로 생기를 불어넣고 멋을 더하자. 화사함이 피어나는 겨울을 위한 제안.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비비드한 파란색과 빨간색의 손잡이, 초록색 장식이 어우러져 경쾌한 스타일을 완성해주는 가방. 한글의 '이음'을 모티브로 한 동그라미 니트 디테일이 시그너처다. 엄윤나 작가 by 니스터.



단아한 달항아리와 어우러진 금빛 나무와 새 장식이 한국적이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브로치. 마효숙 작가.



강렬한 레드 컬러에 화려한 플라워 패턴이 시선을 사로잡는 사파리 재킷. 모노톤의 아우터 안에 받쳐 입으면 살짝살짝 보이는 경쾌한 컬러가 스타일리시하다. 에스카다.

겨울에는 검정이나 회색 등 무채색 외투에 손이 자주 간다. 모노톤은 유행이나 흐름에 상관없고, 어떤 스타일이나 색상과도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다소 칙칙하고 늘 같은 옷을 입은 듯 식상해 보일 수 있다. 어두운 옷을 입더라도 컬러풀한 가방이나 신발, 스카프 등 액세서리를 활용해 부분 포인트를 주면 화사함은 더해지고, 과하지 않은 원 포인트 스타일링의 시크한 패션이 완성된다. 특히 가방은 단조로운 겨울 패션에서 스타일리시한 감각을 뽐내기에 더없이 좋은 아이템이다. 플라워 패턴도 맛있는 겨울 패션에 생기를 덧입히는 데 제격이다. 깔끔한 미니멀 룩에 더해진 플라워 패턴 액세서리는 세련되고 우아한 패션을 연출한다. 너무 화려한 느낌 대신 무심한 듯 멋스럽게 연출하고 싶다면, 다채로운 컬러나 패턴의 스카프 하나만 목에 둘러도 따뜻한 온기까지 더해 준다. 꽃이 피어나는 브로치나 반지, 화사한 컬러와 패턴의 지갑 등 소소하지만 자주 사용하는 액세서리를 생기 넘치는 아이템으로 선택하면 활력 에너지를 채워주는 컬러테라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추위가 맹위를 떨치더라도 생기와 개성을 불어넣는 포인트 믹스매치 패션으로 멋은 포기하지 말자. S



등산용 로프를 활용해 동그란 패턴을 짜고 스웨이드로 꽃잎을 만들어 모란꽃을 형상화한 키링. 가방에 달아 포인트로 장식해도 좋다. 엄윤나 작가 by 니스터.



조각보 기법을 활용해 하늘거리는 풍성한 꽃잎을 표현한 이창숙 작가의 목걸이. 블랙이나 화이트 등 무채색 의상에 더하면 생기와 멋을 더한다.



생명 에너지를 품은 듯한 신비로운 초록빛 비취에 살구빛 꽃이 피어난 은반지. 김영희 작가 by KODF갤러리숍.



우아한 베이비 컬러에 네온 컬러의 페이크 퍼 장식이 유니크한 펌프스 힐. 블랙 힐이라 착화감도 편하다. 플랫폼파트먼트.



차분한 브라운 컬러에 체크 패턴 플라워 참을 장식하여 클래식하고 우아한 핸드백. 닥스.



고려나전경문함에서 꽃잎 패턴을 따온 나전 장식과 신뜻한 청색 옷칠이 만나 특별한 카드 지갑으로 탄생했다. 다웃칠.



정원에서 본 장미와 작약을 핸드백으로 옮겨 화사한 봄날의 순간을 담았다. 천연 소가죽 소재로 시간이 지날수록 표면이 자연스럽게 태닝되며 더 멋스러워진다. 프린마틱.



광명주 일러스트레이터의 사랑스럽고 따뜻한 꽃 그림이 패턴으로 그려진 트웰리 실크 스카프. 닥스.



천연 소가죽에 수채화 느낌의 화사한 꽃 그림이 그려진 정지갑. 르빈티지.

Sulwhasoo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설화수 제품들

윤조 라인

윤조에센스
● 윤조지향 ● 청아지향 ● 백화지향 ● 홍서지향 ● 흑여지향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설화수의 향으로 감성을 일깨우고, 피부 균형을 맞춰주는 자음단™이 건강한 피부 윤기와 홀리스틱 케어를 선사하는 5가지 윤조에센스

60ml | 90,000원대
90ml | 120,000원대

윤조에센스미스트
자음단™이 미세하게 분사되어 생기 있는 윤빛 피부를 선사하는 에센스 미스트

50ml | 40,000원대
110ml | 70,000원대

에센셜 라인

자음수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촉촉히 적셔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젤 타입 스킨

125ml | 57,000원대

자음유액
매끄럽게 펴 밀리고 밀끔히 흡수되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소프트 로션

125ml | 63,000원대

윤결에센스
피부를 촉촉히 가꾸어 메이크업과 단정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피부 결 정리 에센스

50ml | 125,000원대

설리안크림
눈가 피부에 얇게 밀착되어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주름 개선 아이크림

25ml | 115,000원대

탄력크림
자신체™가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높여 탄탄한 피부로 가꾸주는 탄력 강화 크림

75ml | 105,000원대

자음생 라인

자음생수
귀하게 얻은 증상수™가 농밀한 수분을 공급해 촉촉한 피부 바탕을 선사하는 인티에이징 스킨

125ml | 80,000원대

자음생에센스
농축된 인삼 에너지를 담은 미세 캡슐 진세나스피어™가 꼭 찬듯 탄탄하고 매끈한 피부를 선사하는 인삼 캡슐 에센스

50ml | 200,000원대

자음생유액
귀하게 얻은 증상수™가 메이크업에 탄력과 영양을 공급하는 인티에이징 에멀전

125ml | 90,000원대

자음생아이크림
주름과 탄력을 케어해 힘 있고 매끈한 눈가 피부를 선사하는 홍삼 인티에이징 아이크림

20ml | 180,000원대

자음생페이셜오일
귀한 인삼 증자수가 함유된 오일이 피부에 평온함을 주는 수분 케어하는 페이스 오일

20ml | 130,000원대

자음생크림
인삼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인티에이징 크림

60ml | 250,000원대

자음생크림 라이트
인삼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인티에이징 크림 (산뜻한 질감)

60ml | 250,000원대

자음생마스크
자음생크림의 성분과 더더블 랩핑 시트™가 탄탄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하는 인티에이징 크리미 마스크

5매 | 120,000원대

진설 라인

진설클렌징폼
진한 거품이 깨끗함과 촉촉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프리미엄 클렌징 폼

150ml | 60,000원대

진설수
피부 생력을 강화하는 저승에 건강 마그네슘을 더해 피부에 깊이 있는 촉촉함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스킨

125ml | 125,000원대

진설에센스
강인한 저승에 진귀한 산양삼 생분을 더해 탄력 생기 주름을 다각도로 개선해주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에센스

50ml | 380,000원대

진설유액
피부 생력을 강화하는 저승에 해송자유 생분을 더해 윤곽하고 매끄러운 개선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에멀전

125ml | 140,000원대

진설아이에센스
저승 생분과 글루타미네이트 마사지가 빛나는 눈가 피부를 케어하는 프리미엄 토털 인티에이징 아이에센스

20ml | 270,000원대

진설아이크림
눈가 피부의 주름과 자극함을 케어하는 프리미엄 토털 인티에이징 아이크림

25ml | 270,000원대

진설크림
고귀한 저승과 산양삼의 강인한 생양에너지가 피부의 힘을 길러주어 한결같이 젊은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크림

60ml | 470,000원대

진설마스크
강인한 저승의 생양에너지로 다음 날 아침 더욱 맑고 탄탄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슬리핑 마스크

80ml | 200,000원대

설린 라인

설린수
매화의 향신화 에너지를 담아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 바탕을 가꾸주는 생기 베이스 스킨 시너

150ml | 75,000원대

설린에센스
매화의 향신화 에너지를 담아 피부의 생기를 깨우고 맑은 피부로 가꾸주는 생기 탄력 에센스

50ml | 140,000원대

설린크림
매화의 향신화 에너지를 담아 외부 유해오염과 피부 노화의 징후로부터 케어해주는 생기 탄력 크림

50ml | 150,000원대

수술 라인

수술미스트
즉각적인 청량함과 수분 공급으로 피부에 평온함을 주는 수분 진정미스트

100ml | 42,000원대

수술크림
시원한 자작나무 수액이 피부를 편안하게 가꾸주는 수분 크림

50ml | 90,000원대

수술스플루이드
(SPF 50+ / PA+++)
수분 공급,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케어하는 수분스플루이드

50ml | 55,000원대

다함설 라인

다함설크림
단상과 홍삼이 절묘한 에너지를 선사하는 피부 강화 럭셔리 인티에이징 크림

60ml | 650,000원대

자정 라인

자정클렌징폼
백토 생분이 노폐물을 제거해 환한 피부로 가꾸주는 브라이팅 클렌징 폼

150ml | 40,000원대

자정수
자진 피부를 정돈해 주고 미백 효능을 끌어올리는 젤 타입 브라이팅 스킨

125ml | 65,000원대

자정유액
피부 위로 촉촉함이 부드럽게 퍼져 유연하고 맑은 피부 상태로 가꾸어주는 브라이팅 스킨

125ml | 70,000원대

자정미백에센스
백상 미백 생분이 맑고 투명한 어린 피부 빛을 끌어올려주는 브라이팅 에센스

50ml | 210,000원대

자정미백스팟트리트먼트
기미 · 잡티 생상을 억제하고 주름 유발 환경까지 케어하는 국소 부위용 스팟 트리트먼트

25ml | 130,000원대

자정미백아이에센스
광림 자막 어플리케이션과 젤 텍스처가 눈가 피부를 맑게 가꾸주는 브라이팅 아이에센스

15ml | 75,000원대

자정미백크림
브라이팅 활성 생분이 촉촉하게 빛나고 투명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브라이팅 크림

50ml | 135,000원대

자정토닝팩
백상 생분은 맑은 젤 포뮬러가 매끄럽게 빛나는 피부 바탕을 가꾸주는 브라이팅 마스크

80ml | 65,000원대

음션 라인

자정미백마스크
고밀착 시트가 조각들로 구성된 인색과 탄력감을 선사해 주는 브라이팅 마스크

5매 | 65,000원대

상백크림
(SPF 50+ / PA+++)
피부를 보호해 잡티 없이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인티올루션 미백 선크림

40ml | 75,000원대

음션팩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여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필 오프 타입 팩

150ml | 42,000원대

예율마사지크림
크림과 오일이 조화를 이루어 편안하게 롤링되고 촉촉하고 활력감을 동시에 선사하는 피팅 마사지 크림

120ml | 55,000원대

여윤팩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다음 날 아침 피부 윤기가 되살아나게 도와주는 수면 팩

120ml | 52,000원대

설안팩
옥의 기운으로 맑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어주는 수면 팩

80ml | 85,000원대

에센셜 립 마스크 (리커버리)
병통 생분이 손상된 입술 표면을 촉촉하게 매워 건강하게 가꾸어 주는 립 마스크

10g | 45,000원대

에센셜 립 마스크 (모이스처)
천국, 땅구수, 대추 추출물이 매끈하고 윤기 있는 입술로 가꾸어주는 립 마스크

10g | 45,000원대

여운 라인

여운오일 5대지향 컬렉션
● 청아지향 ● 백화지향 ● 윤조지향 ● 홍서지향 ● 흑여지향
귀한 한방 생분을 담아 피부에 깊은 영양 보습을 채워주고, 자연 소재에서 영감을 받은 설화수 5대지향으로 내면의 감성을 일깨워주는 리트&리치 타입 페이스 오일

20ml | 85,000원대 (라이트) ● ● ● ● ● 리치 ● ● ● ● ●

홀리스틱 케어
에센스분양물
천상화 홍삼이 혈행과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어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마시는 홍삼 양물

20g x 30 | 170,000원대

스페셜 라인
영의본초양물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의 힘을 보호하고 윤곽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8주 케어 인티에이징 양물

8ml x 4 | 200,000원대

에스침크림&패치
인기 팔자 부위를 탄력 있게 케어해주는 크림&패치

25ml (크림)+10개(패치) | 200,000원대

에빛크림
빛 결 윤으로 (六) 자존을 밝혀 하루 중일 품격 있는 기색을 유지하는 빛 크림

50ml + 20ml | 150,000원대
튜브 20ml | 50,000원대

소선보크림
(TPF 40 / SPF 30 / PA++)
빛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인티에이징 데이크림

50ml | 150,000원대

고아 라인

탄력크림
자신체™와 5가지 한방 허브로 유연한 목 피부를 탄탄하고 매끄럽게 가꾸주는 인티에이징 넥크림

60ml | 80,000원대

백옥 보석 마사지
얼굴과 목, 바디까지 마사지를 해 리프팅 케어와 맑은 피부를 선사하는 100% 백옥 소재 마사지 데일리 케어 겸용 미백 선크림

240ml | 240,000원대

고아크림
메사단™이 처진 피부에 탄력을 부여해 촉촉하고 탄탄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고보도 리프팅 크림

60ml | 120,000원대

고아앰플에센스
메사단™과 마그 추출물이 피부를 윤곽하게 가꾸는 고영양 데일리 앰플 에센스

50ml | 140,000원대

클렌징 라인

중중비누
홍삼전액의 향신화 효능으로 매끄럽고 없애주는 촉촉하고 편안한 수분 클렌징 비누

100g x 2 | 45,000원대

순행클렌징워터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말끔히 없애주는 촉촉하고 편안한 수분 클렌징 워터

200ml | 38,000원대
400ml | 63,000원대

순행클렌징오일
산뜻한 사용감의 오일이 얼굴에 부드럽게 롤링되는 저자극 클렌징 오일

200ml | 40,000원대

순행클렌징폼
피부 노폐물을 말끔히 없애고 촉촉함을 유지해주는 저자극 클렌징 폼

200ml | 35,000원대

MEN

리프레시클렌징폼
천연 피부 성분과 조일한 거품의 데일리 스크림 겸용 클렌징 폼

150ml | 30,000원대

분운에센스
주름, 탄력, 촉촉함을 케어해주는 워터 젤 타입의 인티에이징 에센스

140ml | 73,000원대

분운유액
남성 피부 장벽 강화 및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해주는 고보습 인티에이징 로션

90ml | 52,000원대

분운크림
피부 노화를 완화하는 인삼씨 오일 생분의 고보습 인티에이징 크림

40ml | 90,000원대

릴렉싱 UV 프로텍터
(SPF 50+ / PA+++)
자외선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편안한 피부 보호를 만드는 남성 UV 프로텍터

50ml | 40,000원대

바디 & 헤어

연성바디크림
노화로 인해 호르진 피부를 탄력 있게 가꾸어 주는 고보습 인티에이징 바디 크림

200ml | 80,000원대

동백윤오일
천연 유래 동백 오일이 끈적임 없이 자연스러운 윤기를 선사하는 헤어 오일

100ml | 35,000원대

핸드크림 5대향 컬렉션
● 청린향 ● 백은향 ● 금은향 ● 홍과향 ● 흑진향
귀한 한방 오일이 건조한 손에 깊은 보습과 윤기를 선사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향으로 내면의 감성을 일깨워주는 리트&리치 타입 핸드크림

40ml | 30,000원대 (라이트) ● ● ● ● ● 리치 ● ● ● ● ●

메이크업밸런서

메이크업밸런서
(SPF 34 PA++)
피부 결과 피부 문제로 밸런싱하는 메이크업밸런서

35ml | 65,000원대

CC

CC유액
(SPF 34 PA++)
매끈한 도자기 피부 결로 표현해주는 유액 타입 CC

35ml | 60,000원대

컨실러 스틱

에센셜 컨실러 스틱
부드럽게 도포되어 얼굴에 넓게 퍼져 있는 결정까지 한번에 커버해주는 컨실러 스틱

5g | 40,000원대

쿠션

퍼펙팅쿠션
(SPF 50+ / PA+++)
오래 지속되는 기쁘고 미세한 가버와 촉촉하고 윤기 있는 마무리로 완벽한 메이크업을 연출하는 커버 윤기 쿠션

15g x 2 | 65,000원대 (리필 30,000원대)

자정 브라이트닝 쿠션
(SPF 50+ / PA+++)
진주빛 광채로 투명한 피부빛을 선사하는 자정미백 쿠션

14g x 2 | 68,000원대 (리필 33,000원대)

퍼펙팅쿠션 인텐스
(SPF 50+ / PA+++)
질고 건강한 동안 빛을 위한 인티에이징 쿠션

15g x 2 | 85,000원대 (리필 40,000원대)

피니시 파우더

파우더 포 쿠션
피부 위에 공기처럼 세팅되어 방금 메이크업한 듯한 산뜻함을 유지시켜주는 피니시 파우더

8g | 65,000원대

하이라이터

멀티 쿠션 하이라이터
피부에 생기 불꽃을 선사하는 펠 베이스 겸 하이라이터

8g | 40,000원대

쉬어 래스팅 메이크업

- 11호 포슬린(핑크)
- 15호 아이보리(핑크)
- 17호 아이보리(베이지)
- 21호 내추럴(핑크)
- 23호 내추럴(베이지)
- 25호 샌드(핑크)

쉬어 래스팅 파운데이션 (SPF 25 / PA++)
쉬어 하이드라 포몰러로 화사함을 선사하는 파운데이션
30ml | 58,000원대

쉬어 래스팅 젤 쿠션 (SPF 35 / PA++)
멀팅 젤 텍스처인 마이크로 망으로 화사함을 선사하는 쿠션
12g |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에서 메이크업

에서 파운데이션[리퀴드] (SPF 15 / PA+)
3중 보습으로 촉촉하게 커버하는 파운데이션
30ml | 55,000원대

에서 파운데이션[크림] (SPF 20 / PA++)
영양 크림을 바른 듯 매끄럽게 커버해주는 크림 파운데이션
30ml | 55,000원대

에서 스킨커버 (SPF 25 / PA++)
크리미한 텍스처의 케이크 타입 파운데이션
14g |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에서 트윈케이크 (SPF 30 / PA++)
담담함 없이 커버해주는 트윈케이크
11g |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에서 파우더
섬세한 파우더가 화사한 톤으로 가꾸주는 파우더
20g | 55,000원대 (리필 40,000원대)

자정 메이크업

자정 에센스BB (SPF 50+ / PA+++)
하루 종일 밝고 화사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브라이트닝 에센스 BB
30ml | 60,000원대

자정 미백UV팩트 (SPF 50+ / PA+++)
자외선과 유분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브라이트닝 팩트
9g | 60,000원대 (리필 45,000원대)

진설 메이크업

진설 윤메이크업크림 (SPF 25 / PA++)
3가지 빛깔의 보습 파우더가 피부에 윤기를 표현하는 메이크업 크림
30ml | 90,000원대

진설 윤파운데이션 (SPF 25 / PA++)
피부 표면에 촘촘하게 밀착되는 프리미엄 파운데이션
30ml | 90,000원대

진설 윤팩트
영문 파우더가 화사함과 윤기를 표현해주는 프리미엄 팩트
13.5g | 110,000원대 (리필 80,000원대)

레이디스 블러셔

레이디스 블러셔
자연스럽게 화사한 핑크와 윤기를 피부 빛을 더해주는 멀티 컬러 블러셔
10g | 60,000원대

립

에센셜 립세럼 스틱
고보습 보습으로 생기 있고 탄력 넘치는 입술로 가꾸주는 데일리 립 케어
3g | 40,000원대

아이브로우

아이브로우 퍼펙터
부드러운 발색으로 자연스러운 눈썹을 연출할 수 있는 아이브로우 퍼펙터
0.3g | 20,000원대 (리필 14,000원대)

실란 컬러섀

실란 콤팩트
전통 입시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심장형 문양을 새기고 미세한 입자로 곱고 맑은 피부로 표현하는 프리미엄 콤팩트 파우더
9g x 2 | 180,000원대

실란 컬러팩트
전통 입시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심장형 문양을 새기고 천연 유래 색소로 자연스러운 광택감을 주는 컬러팩트
9g | 180,000원대

플래그십 스토어 익스클루시브

윤조에센스 New Year 컬렉션
피부 균형을 맞춰주는 자몽디™이 윤기를 선사하고 복된 기운을 상징하는 붉은색 디자인의 2019년 테마의 윤조에센스
90ml | 120,000원대

윤조에센스 켈터컬렉션
자몽디™이 피부 윤기를 선사하고 아시아 지역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첫 단계 에센스
60ml | 90,000원대

자몽수 켈터컬렉션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적시고 아시아 지역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젤 타입 스킨
125ml | 57,000원대

자몽생유액 켈터컬렉션
매끄럽게 발리고 밀끔히 흡수되며 아시아 지역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소프트 로션
125ml | 63,000원대

자몽생크림 라이트 켈터컬렉션
인상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고 아시아 지역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인상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250,000원대

자몽생크림 라이트 켈터컬렉션
인상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고 아시아 지역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인상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250,000원대

매화지향 향유
백매화의 생명력을 담은 은은한 향으로 부드러운 미용에 에너지를 선사하는 오일 타입의 향수
30ml | 130,000원대

윤조지향 향초
나무의 따뜻함으로 내면의 감성을 깨우는 기쁨 있는 향의 소이왁스 향초
200g | 100,000원대

매화지향 향초
백매화의 고귀한 향으로 긍정적 에너지를 선사하는 소이왁스 향초
200g | 100,000원대

윤조지향 포푸리
한방 원료와 나무의 따뜻하고 기쁨 있는 향의 조화로 공간을 고급스럽게 채워주는 한방 포푸리
100g | 120,000원대

매화지향 포푸리
한방 원료와 백매화의 생명력이 담긴 향의 조화로 공간에 생기를 채워주는 한방 포푸리
100g | 120,000원대

윤조지향 향수 스프레이
나무의 따뜻함을 남기는 동양적인 우디 계열의 기쁨 있는 향이 담긴 향수 스프레이
15ml x 2ea | 120,000원대

매화지향 향수 스프레이
백매화의 생명력과 고귀함을 담은 향이 담긴 휴대가 간편한 향수 스프레이
15ml x 2ea | 120,000원대

에센셜 밤
바디부터 헤어까지 선풍적인 홀리스틱 뷰티를 경험할 수 있는 멀티 보습 밤
10g | 40,000원대

딤 릴렉스 밤
천연 성분으로 지친 피부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릴렉스 밤
10g | 40,000원대

립 틴트 밤
촉촉하고 부드러운 입술로 가꾸주는 보습 틴트 밤
10g | 40,000원대

공중비누 - 소나무
청량한 소나무 향이 미용과 피부를 편안하게 청정시키는 40일 속성 프리미엄 비누
100g | 25,000원대

공중비누 - 홍삼
깊은 한방 향이 활력을 선사하며, 항산화 효능의 홍삼추출물을 함유한 40일 속성 프리미엄 비누
100g | 25,000원대

공중비누 - 살구
싱그러운 살구향이 기분을 전환시켜주며, 피부에 생기를 부여하는 40일 속성 프리미엄 비누
100g | 25,000원대

공중비누 - 매화
백매화향이 기분을 맑게 해주며, 깨끗하고 청아한 향이 피부에 생기를 부여하는 40일 속성 프리미엄 비누
100g | 25,000원대

핸드워시 백은향
한방 오일과 고보습 젤 포뮬러가 손을 촉촉하게 감싸고, 은은한 매화 향이 기분을 맑게 해주는 핸드워시
300ml | 36,000원

핸드워시 흑진향
한방 오일과 고보습 젤 포뮬러가 손을 촉촉하게 감싸고, 묵직하고 풍부한 향이 활력을 선사하는 핸드워시
300ml | 36,000원

홍삼발효차
제주 삼나무와 숙성한 후 발효차에 귀한 홍삼을 블렌딩한 발효차
1.5g x 10ea | 25,000원대

매화차
눈 속에서 피어나 봄의 희망을 전하는 청초하고 우아한 매화를 담은 매화 허브차
1g x 10ea | 25,000원대

세차
곡우 절기에 제주 차 밭에서 재밌은 어떤 첫잎을 담은 전통 작살차
1.5g x 10ea | 20,000원대

삼다연 제주영글
제주 삼나무와 숙성한 후 발효차에 제주 영글을 더한 블렌딩 티
1.8g x 10ea | 15,000원대



찬란하게 피어난 근대의 미술 <대한제국의 미술-빛의 길을 꿈꾸다>

대한제국의 몰락과 함께 찬란하게 피어나지 못한 한국 근대미술의 정막이 열렸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고종과 순종 시기의 회화, 사진, 공예품을 통하여 뜨거운 대한제국의 예술혼을 만날 수 있다.

드라마 <미스터션샤인>에서 만난 고종과 대한제국은 참담하고 암담했다. 나라의 자주권을 잃어가는 비통한 상황 속에서 시대의 예술도 망국과 함께 잊혔다. 전통 미술의 쇠퇴기뿐만 여겨졌던 고종과 순종 시대, 즉 대한제국의 예술이 꽤 역동적이고 찬란했었음에도 말이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가 바로 <대한제국의 미술-빛의 길을 꿈꾸다>이다. 대한제국 시기의 미술을 새롭게 조명하는 이번 전시는 당시의 회화·사진·공예 200여 점을 통해 당대의 미술이 어떻게 한국 근대 미술의 토대를 마련했는지 소개한다.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넘어가는 미술의 변화를 따라간다. 2부는 대한제국이 적극 수용한 사진의 기록으로, 고종을 비롯한 황실 인물들의 사진을 만날 수 있다. 3부는 공예의 전반적인 양상과 변화를 조명하며, 4부는 궁중화원이 화가로 변모하는 모습을 그린다. <미스터션샤인>에서 고종을 연기했던 배우 이준은 대한제국의 미술을 생생하게 설명하는 가이드 투어를 맡아 감동과 여운을 전한다.

일정 2019년 2월 6일까지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문의 02-2022-0600

뮤지컬 <그날들>



고귀 감광석이 부른 명곡들을 감상할 수 있는 주크박스 뮤지컬로 2013년 초연 이후 평균 객석 점유율 90퍼센트를 유지한 스테디셀러다. 감각적인 연출로 원곡의 감성과 감동은 살아있고, 이코바비타과 무술을 접목한 남성적이고 화려한 군무는 압도적인 장면을 선사한다. 일정 2019년 2월 22일~5월 6일 장소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문의 070-4659-5252

전시 <피카소와 큐비즘>



인체주의의 탄생과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연대 기적 서술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파리 시립미술관 소장 걸작선으로 '20세기 현대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 '근대 회화의 아버지' 폴 세잔 등 유명한 인체파 작가의 진품 9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일정 2019년 3월 31일까지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문의 1899-8598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새해의 시작을 흥겨운 마당놀이로 열어보자. 기생 추월의 유혹에 넘어가 가산을 탕진한 춘풍이 어머니와 부인에게 혼쭐나는 내용으로 조선 말기의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한 놀이판에서 색다른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배우, 무용수와 연주자를 가까이에서 만나는 신명나는 한판이 벌어진다. 일정 2019년 1월 20일까지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문의 02-2280-4114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진설크림(3명)

천 년의 생명력을 간직한 적송의 DAA 성분을 고농축으로 담은 한방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크림입니다. 노화로 인해 저하된 세포를 활성화해 젊은 피부로 되돌려주며 산양삼 성분은 피부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피부 생명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힘을 부여합니다.



자정 브라이팅 쿠션(5명)

진주빛 광채로 피부를 환하게 밝혀주고 투명한 순백의 피부빛을 선사하는 자정미백 쿠션입니다. 백삼 추출물과 백합꽃 추출물이 피부 속부터 반사광을 밝혀 도자기처럼 매끈하고 깨끗한 피부로 표현하며 자연스럽게 화사한 톤업 효과를 선사합니다.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매거진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독자 엽서에 내용을 적어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독자 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Sulwhasoo> 내의 독자 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 응모 마감 2019년 2월 15일까지
- 증정 선물 진설크림, 자정 브라이팅 쿠션
- 당첨자 발표 2019년 3/4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2018년 11/12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여은오일 윤조지형(5명)

- 강구권 대구시 달서구 도원로
- 박상미 충북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 서신애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 정점식 부산시 사하구 오적로
- 정주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사랑과 살인편> 관람권(3명)

- 김자현 경기도 부천시 안곡로
- 신수정 경북 예천군 호명면 검무로
- 최미리 서울시 강북구 숭생로

2018년 11/12월호 당첨자 선물은 1월 30일까지 보내드립니다.

雪花秀

Sulwhasoo



고귀한 적송의 생명력으로 피부, 새로운 힘을 갖다

NEW 설화수 진설크림

영원한 아름다움을 생각해본 적 있나요?
모두가 변치 않기만을 바랄 때, 설화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지는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젊음을 지켜내는 적송의 강인한 힘과
칭정 자연의 생명력을 그대로 담은 산양삼으로 완성한 진설크림-
이제, 매일 더 새롭게 아름다워지는 피부의 힘을 가지세요



<설화수 전국 매장>

FLAGSHIP STORE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02-541-9270

SPA

설화수 스파 롯데호텔서울 3~4층 02-318-6121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지하 1층 02-541-9272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4층 02-541-9273

백화점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148
-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7192
- 롯데백화점 강남점 02-531-2165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5029
-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02-3707-1129
- 롯데백화점 관악점 02-3289-8140
- 롯데백화점 노원점 02-950-2152
- 롯데백화점 미아점 02-944-2046
-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02-2219-3116
- 롯데백화점 월드컵점 02-3213-2056
-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02-6116-3150
- 현대백화점 본점 02-3438-6072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614
- 현대백화점 신촌점 02-3145-2114
- 현대백화점 미아점 02-2117-1147
- 현대백화점 천호점 02-2225-7184
-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71
-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081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265
-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02-2639-4122
-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02-6905-3360
- 아이파크백화점 02-2012-4179
-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02-2211-0148
- AK플라자백화점 구로본점 02-852-6136

인천광역시, 경기도

- 롯데백화점 인천점 032-450-2140
- 롯데백화점 부평점 032-452-2175
- 롯데백화점 안산점 031-412-7748
- 롯데백화점 평촌점 031-8086-9159
- 롯데백화점 수원점 031-8066-0157
- 롯데백화점 분당점 031-738-2172
- 롯데백화점 일산점 031-909-3224
- 롯데백화점 안양점 031-463-2147
- 롯데백화점 구리점 031-550-7912
- 롯데백화점 중동점 032-320-7135
- 현대백화점 중동점 032-623-2136
-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2110
-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031-822-3140
-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032-430-1479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1282
-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031-8082-0343
- 신세계백화점 하남점 031-8072-1801
-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031-237-9890
-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 031-709-9694
- AK플라자백화점 수원점 031-240-1152
- AK플라자백화점 평택점 031-646-6130

부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부산점 051-805-0484
- 롯데백화점 동래점 051-552-4118
-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30-3183
- 롯데백화점 광복점 051-678-3166
-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0140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296

울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울산점 052-258-5784
- 현대백화점 울산점 052-228-0116
-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052-250-4173

대구광역시

- (주)대구백화점 본점 053-428-2961
- (주)대구백화점 프리아점 053-426-6036
-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054
- 롯데백화점 상인점 053-258-3106
-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245-2125
- 동아백화점 수성점 053-781-9295
-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053-661-1861

광주광역시, 전라도

- 롯데백화점 광주점 062-221-1139
-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062-368-6764
- 롯데백화점 전주점 063-289-3176
- 뉴코아아울렛 순천점 061-720-5151

경상도

- 롯데백화점 창원점 055-279-3116
- 롯데백화점 마산점 055-240-5193
- 롯데백화점 포항점 054-230-1190
-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055-240-1263
-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055-272-1108
-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055-791-1165
- 동아백화점 구미점 054-455-6399

통합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 □ □ □ □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15.07.01~2024.09.01

서울 마포우체국
승인 제40861호

받는 사람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Sulwhasoo> 담당자 앞

전화: 080-023-5454(수신자 요금 부담)

□ 0 □ 4 □ 1 □ 5 □ 6

Sulwhasoo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펼치다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설화지혜(8p)	7	6	5	4	3	2	1
피부 섬기기(12p)	7	6	5	4	3	2	1
新 장인을 만나다(16p)	7	6	5	4	3	2	1
공간미감(22p)	7	6	5	4	3	2	1
진너다(28p)	7	6	5	4	3	2	1

2. 누리다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설화인(36p)	7	6	5	4	3	2	1
어우러지다(44p)	7	6	5	4	3	2	1
설화풍경(50p)	7	6	5	4	3	2	1
설화보감(54p)	7	6	5	4	3	2	1
아름다운 기행(60p)	7	6	5	4	3	2	1
설화수를 말하다(66p)	7	6	5	4	3	2	1
설화공간(72p)	7	6	5	4	3	2	1

3. 익히다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배움의 기쁨(78p)	7	6	5	4	3	2	1
한국의 멋(82p)	7	6	5	4	3	2	1
설화애장(84p)	7	6	5	4	3	2	1
읽다(86p)	7	6	5	4	3	2	1
집 안 단장(90p)	7	6	5	4	3	2	1
몸 단장(92p)	7	6	5	4	3	2	1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다음 호 (Sulwhasoo)에 더 적극적으로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해당 칸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상품 정보 제품 미용법 요리, 인테리어 및 패션
 공연, 전시 및 문화 정보 풍경 및 여행지 인물 인터뷰
 기타 _____

2. 다음 중 받고 싶은 선물 1개를 선택해주세요. (98p 참조)

진설 크림 자정 브라이트닝 쿠션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시는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1/2월호 (Sulwhasoo)의 엽서 응모 마감은 2월 15일입니다.

- * (주)아모레퍼시픽은 애독자엽서 추첨 이벤트 참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소, 성별, 나이, 전화번호
 - 수집 및 이용 목적: 애독자엽서 선물 발송
 - 보유 및 이용 기간: 애독자엽서 응모 마감으로부터 3개월
 - * (주)아모레퍼시픽은 이벤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취급위탁을 받는 자: 누리원기획, 가이미디어
 - 취급위탁을 받는 업무: 엽서 이벤트 참여자 확인 및 당첨자 게시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원도, 충청도	
엠펙화점 춘천점	033-257-4129
AK플라자백화점 원주점	033-811-5502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041-552-3358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17
롯데백화점 청주점	043-219-9219
현대백화점 충청점	043-909-4124
롯데백화점 대전점	042-528-3320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042-488-5650
세이백화점	042-256-0198

면세점

롯데 부산 면세점	051-810-3879
롯데 소공 면세점	02-759-6662
롯데 인천 면세점	032-743-2422
롯데 인천 탑승동	032-743-7947
롯데 제주 면세점	064-793-3138
롯데 코엑스 면세점	02-3484-9655
롯데 김포 면세점	02-2669-6730
롯데 김해공항 면세점	051-979-1932
신라 면세점	02-2230-3597
신라 인천 면세점	032-743-4488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	02-490-3351
신라 제주 면세점	064-710-7324
신세계 명동 면세점	02-6370-4109
신세계 면세점	051-749-1448
한화 제주공항 면세점	064-740-0144
한화 면세점	02-2136-9779
동화 면세점	02-399-3183
삼익 면세점	032-743-0343
에스엠 인천 면세점	032-743-1570
에스엠 면세점	02-2120-6210
시티플러스 면세점	032-743-5748
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	064-740-6904
두산타워 면세점	02-3399-9236

